

親北도그마는 不治의 ‘文盲病’ 이다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2종류의 문맹이 있다. 글을 몰라서 글을 모르는 문맹이 있고 글을 알면서 글을 모르는 문맹이 있다. 글을 몰라서 문맹이 된 사람은 글을 배우면 된다. 이 사람들은 아주 쉽게 문맹에서 벗어난다. 문제는 글을 알면서 글을 모르는 문맹이다. 이들은 아무리 글을 가르쳐도 안 되고 아무리 깨우쳐도 안 된다. 늘 다른 곳을 쳐다보고 늘 다른 것을 생각하고 늘 다른 소리만을 낸다. 바로 선천성 도그마병(病)에 걸린 사람들이다.

도그마(dogma)는 병이다. 병 중에도 난치병(難治病)이다. 치료가 아주 어려운 병이다. 자기 생각만 생각이라 생각하고 자기 말만 말이라 말하고 자기 주장만 주장이라 주장한다.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다. 남의 생각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의 주장은 주장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거기에 선천성 도그마병은 난치를 넘어 불치(不治)에 이른 병이다. 어떤 명의도 낫게할 수 없고 어떤 명약도 듣지 않는다. 어떤 수술도 불능(不能)이고 어떤 처방도 효과가 없다.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은 더 커지고, 처방을 하면 할수록 병은 더 깊어진다.

도그마의 병통은 자기 병을 자기가 모르는 것이다. 아니, 자기 병은 절대로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 큰 병통은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진짜 의사는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병든 자기는 병든 자기가 정상(正常)이고, 건강한 타자(他者)는 모두 병자로 보는 것이다.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머리에 종양이 가득 차는데도 그것이 바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도그마라 한다. 도그마는 간단하다. 도그마는 간단하면서 명료하다. 도그마의 작용은 복잡하게도 길게도 하지 않는다. 단 한 번 작용으로 사람을 끝장낸다. 누군가 ‘끝장토론’이라 말하듯이 단 한 번으로 사람을 요절내 버리는 것이다. 그 요절은 제일 먼저 눈을 멀게 한다. 보아도 보이지 않게 한다. 보기는 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한 번 도그마에 걸리면 보는데 보지 못하는 장님과 똑 같이 되는 것이다.

보아도 보지 못하면 읽어도 읽지를 못한다. 분명히 글을 읽는데 뜻을 모르게 한다. 뜻을 알아도 거꾸로 알게 한다. 혹은 정반대로 알게한다. 이것이 바른 뜻이라고 말하면 그는 정반대되는 저것이 바른 뜻이라고 주장한다. 건전한 사

람이 보면 그는 분명 글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는 것이다. 바로 도그마성의 문맹(文盲)이다.

그것은 역설(逆說)이 아니다. 아 이러니도 아니다. 패러독스도 아니다. 도그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다. 생물학적으로 그들은 분명히 본다, 읽는다, 주장한다, 외친다. 그러나 사회학적으

특별기고



宋復

• 본회 회우
• 연세대 명예교수

그들의 믿음은 미신으로만 찬다. 미신으로 끊임없이 유언비어를 퍼트린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보지 못한다. 건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라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아예 눈을 감는다. 대한민국이 ‘바른 나라’이고 김정일의 북한이 ‘불량국가’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의 귀는 열리지 않는다. 북쪽의 ‘비인간’을 아무리 보라고 역설해도 그들의 눈은 뜨이지 않는다. 거꾸로 바른

마 환자들의 병 앓음이다. 불치의 병에서 헤어날 수 없는 단말마의 비명이다. 그 처절한 비명을 그들은 소리 내면서도 듣지 못한다. 치열히 병을 앓으면서도 병명도 병원인도 모른다. 이유도 모르고 앓기만 한다.

도그마는 수렁이다. 그것도 깊은 수렁이다. 진흙이나 개흙이 바닥을 알 수 없도록 깊게 깊게 괴어 있는 깊은 곳이다. 한번 빠지면 누구도 헤어날 수 없다. 헤어내려하면 더 빠져 들어간다. 그래서 수렁이라는 말 앞에는 ‘불행’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는다. ‘불행’의 수렁. 그것이 도그마다. 그것이 도그마병에 걸린 문맹(文盲)의 비극이다. 어느 시인이 말했는가. 수렁의 거리에서/사람들은 뜻없이 죽어가고/ 헛된 영욕(榮辱)과 미련(未練) 속에/마음 놓고 눈 감지 못한다.

도그마라는 수렁에 빠져들면 아무 뜻도 없이 죽어간다. 헛된 영욕 속에 해마다 수렁에 빠져들듯 마음 놓고 눈도 감지 못하고 숨을 거둔다. 그것이 도그마에 걸린 사람들의 최후다. 뿐이라, 도그마라는 수렁은 반드시 무리를 부른다. 그들은 홀로 가지 못하고 홀로 서지 못한다. 하루살이 떼가 무리지어 날듯 그들은 반드시 무리를 만든다.

그리고 무리지어 우상(偶像)을 세운다. 우상은 허수아비다. 허수아비는 속임수다. 그 속임수로 새폐를 유혹한다. 새폐는 새폐임으로써 해서 꼬여든다. 인간은 허수아비에 속지 않는다. 지능이 새폐수준의 인간일 때만이 어쩔수 없이 허수아비에 속는다. 속절없이 허수아비에 끌려간다.

선천성 도그마병에 걸린 우리의 이 무학·문맹자들, 그들은 그들이 만든 우상을 들고 수렁 속을 헤맨다. 수렁 속에서도 그들은 우상을 놓지 못한다. 그 허수아비 우상, 그 우상에 스스로 속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간다. 누가 그들의 우상을 깰 수 있을 것인가. 니체는 말했다. 지식인의 사명은 우상을 깨는 것이라고 지식인의 역할은 도그마를 부수는 것이라고 그리고 지식인의 책무는 우상과 도그마에 눈이 먼 문맹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라고 글을 바른 눈으로 읽히고 곡학아세(曲學阿世) 않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이 선천성 도그마 환자들의 병은 너무나 깊다. 자연사(自然死)가 그들의 정해진 운명인지도 모른다. [4]

北韓만행 아무리 설명해도 안믿어 김일성-김정일 세습왕조만 신성시

로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소리 내지도 못하고, 외치지도 못한다. 그들의 말은 문맹의 말이고, 그들의 외침은 문맹자의 외침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문명(文明)이 오직 문맹(文盲)일 뿐이다.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인지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그들은 비과학적으로만 믿는다. 도그마에 과학이 없듯이

국가를 흔들고 정통의 헌법을 무너뜨리는 ‘민란 프로젝트’를 쏟아낸다.

그들은 김일성-김정일 세습왕조를 신성 로마제국처럼 신성시하고, 김일성의 실패, 김정일의 파탄을 거꾸로 대성취(大成就)인양 수구하려한다. 그들은 무엇을 수구하려하는지도 모르고 수구하고 그들은 왜 수구하려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수구만 한다. 이 모두 도그

강원도 영월로 갑니다

대한언론인회 5월 체력단련행사

대한언론인회는 오는 5월 20일 봄철 체력단련행사를 위해 강원도 영월로 갑니다.

탐방코스 : 당일 08 :00시 프레스센터 앞 출발, 장릉 - 단종역사관- 청령포- 관풍헌 - 창절사 - 선암마을 한반도지형 - 법흥사 흥녕선원지(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02-732-4798 또는 팩스 02-730-1270으로 연락바랍니다.(신청은 5월 13일 하루만 받습니다. 선착순 80명)

大韓言論人會

北韓은 아직 미라가 통치하고 있다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미라(mirra)란 '인공적 처리나 자연건조에 의하여 부패를 막고 보존된 시체'를 말한다. 북한에는 이것이 있다. 그것은 평양의 '금수산 기념 궁전'에 안치되어 있는 김일성이다. 그는 이미 죽었으나 그들의 체제상으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실세이다.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일 뿐 국가주석은 아니다. 국가주석의 자리는 영원히 김일성이 차지하고 있다. 김일성은 북한에 있어서는 '보이는 세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지배하는 전지전능한 신이다. 따라서 북한은 김일성의 유훈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나라를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이다.

그렇다면 북에서는 김정일이 뭐라고 말했든 그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죽은 김일성이 말했던 말만이 유일한 교과서이다. 살아 있는 사람의 말은 중요치 않고, 죽은 사람의 말만이 현실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김일성은 지금 말을 할 수는 없다.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유훈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변경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가 살아 있을 때 해놓았던 말을 가지고 현재의 사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북에는 '과학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고, 여기서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라는 책을 발행한 바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북한정세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고전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 의하면 6·25전쟁은 '미국이 그들의 괴뢰인 한국군을 부추겨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이다.

'일찍부터 전쟁준비에 광분해온 미국은 1950년 6월 15일, 그들의 앞잡이인 이승만 일당을 부추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시작하였다. 38선 일대에 집결해 있던 이승만 괴뢰군은 미국인 군사고문의 직접지휘 하에 그 날 새벽 38도선 이북지역에 대한 무력침공을 강행하였다. 적은 침략전쟁을 개시

함에 있어, 불의의 공격을 가하면 수일 안에 공화국 북반부의 전지역을 용이하게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적은 조선인민에 대한 모험적인 전략계획을 세웠다.' (p.27~28)

그러나 '김일성의 탁월한 지도로 미국의 도발은 격퇴되고, 서울, 대전 등 한국의 주요도시는 해방되었으며, 조선은 미국에 승리했다'라는 것이 그들이 엮어낸

특별기고



박헌태

- 본회 회우
- 전 KBS 사장
- 전 국회의원

그렇다면, 그들이 해방했다는 서울이나 대전이 여전히 한국의 영토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6·25 전쟁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었다는 것이다.

'최후까지 온갖 흉악한 책동을 다 동원하며, 죽기 살기로 정전회담을 결렬시켜 조선전쟁의 계속을 획책하던 미 제국주의자들도 날로 강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정복하려던 미 제국주의자의 무모한 침략계획은 드디어 파탄되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조선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로 종결되었다.' (p.312)

여기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남쪽의 좌파세력들에게도 이러한 잘못된 6·25 전쟁관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실증 사학적으로 6·25가 남침이었다는 사실이 아무리 입증되어도 별로 효과가 없다. 왜냐 하면 그들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신앙이기 때문이다. 신앙은 논리를 초월한 믿음이다.

김대중·노무현 시대에는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흔들어가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찌고 저찌고 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요즘은 그런 낡빠진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북측이 만들어낸 6·25 신화까지 말끔히 씻겨 나갔는지는 의문이다. 좌파들의 활동이 좀 뜸해진 것은 북이 느닷없이 일으킨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 '식량 원조를 해야 한다'는 논의는 아직도 무성하다. '대화'는 도대체 누가 누구와 한다는 얘기냐? '미라'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아마도 '무당' 뿐일 것이다. 무당을 뽑자면, 그것은 좌파 중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미라와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나는 20여년 전 베이징에 간 김에 '모택동 기념관'이라는 데를 가보았다. 천안문 광장에 있는 모택동 기념관은 높다란 방 두개로 되어 있었다. 첫 머리에는 미국의 링컨 기념관처럼 거대한 모택동 조각이 있었고, 다음 칸에는 유리 관 속에, 희미하게 조명된 모택동 미라가 있었다. 미라는 지하에 놓여져 있다가 기온이 서늘한 아침에만 잠깐 지상으로 올라온다는 것이었다. 이때 나는 잠시 생각했다. 사람이 '위대'해져 있으면 죽고 나서도 결코 편안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4]

'국가주석' 자리는 영원히 김일성 차지 '6·25北侵' 주장등 신앙으로 승화시켜



미라로 만들어져 금수산 기념관 궁전 안의 유리관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

신화이다.

김일성이 6·25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에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스탈린으로부터 남침의 사전 양해를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해도, 그런 것은 그들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그들의 정치, 군사 간부들이 어떤 신화를 믿고 있는가 만이 문제이다.

되는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의 위력 앞에서 보다 큰 참패를 면하기 위해, 그리고 정전회담에서도 우리 측의 시종일관한 성의 있는 노력과 전 세계의 평화애호인민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부득이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참다운 우리 조국,

한 마디로 천만의 말씀이다.

24년-튀니지 벤 알리 전 대통령, 30년-이집트 무바라크 전 대통령, 42년-리비아 카다피 국가원수, 41년-시리아 하페즈 알아시드 대통령, 33년-예멘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 66년-북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체제.

세계 독재국가들의 장기간 집권 통치 기간이다.

리비아의 카다피와 북한의 김일성은 독특한 관계였다. 김일성은 제3세계 국가들에 반미전선의 만형 역할을 자처했다. 하지만 카다피만은 김일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평양을 방문해서도 고집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 유럽과 갈등을 빚으면서 끈질기게 핵무기를 추구했던 카다피는 2003년 12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선언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받아들여기로 했다.

그런 후에 일어난 리비아 내전은 국제

사회가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리 큰 위험부담을 던지지 않았다. 핵을 가진 카다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카다피가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면 국제사회는 그렇게 쉽게 국민보호책임을 거론하며 리비아 상공에 전투기를 띄울 수 있었을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제일 먼저 생각해봤을 것이다.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재스민 혁명 바람 北韓땅에도 불까

時 論



천상기

- 본회 회우
- 전 일간스포츠 편집부국장
- 경시대 초빙교수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이란 바로 '한전 담보'와 '관계개선'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상대를 얼려 넘겨 무장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방식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입장을 내놨다.

요즈음 외국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북한에서도 재스민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다"라고 질문한다. 불행히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전무에 가깝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재스민 혁명이 휩쓸고 있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은 지독한 독재에도 불구하고 위성방송, 무선전화, 인터넷 등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 이웃 국가는 물론이고 먼 외국에 대한 정보를 거의 무제한 접할 수 있고 수많은 외국 관광객을 만나면서 바깥 세상에 대해 소상하게 알고 있다. 이에 비하면 북한은 완전히 닫혀 있는 별세계 폐쇄국가다. 북한 국민은 세계와의 소통이 전혀 없는 생지옥에 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당장 재스민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하여 북한 정권은 재스민 혁명을 보면서 아주 못된 것만 배우고 있다. 카다피가 서방세계에 당하고 있는 이유가 일찍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했기 때문이란단다.

3면으로 이어집니다.

韋庵 훈장 박탈 ‘是日也 放聲大哭’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위암 장지연 선생은 한 자루 붓으로 일제 침략에 저항했던 항일 언론인이다. 애국계몽운동을 벌인 개화운동가요, 많은 저술로 민족정신을 고양했던 국학자였으며 휘문의숙과 평양 일신학교장을 맡아 후진을 가르쳤던 교육자였다. ‘시사총보’의 주필에 이어 ‘황성신문’ 사장으로 항일노조를 펼쳐다가 투옥되었고, 찬바람부는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망명하여 ‘해조신문’에서 항일의 필봉을 잡았으나 여의치 못하여 귀국한 후에는 진주로 내려가서 유일한 지방신문 ‘경남일보’의 주필로 언론활동의 마지막을 보냈다.

특별기고



정진석

- 본회 명예회우
-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우국의 선비가 할 일은 붓을 들어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침략에 저항하여 구국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장지연의 ‘시일이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은 한국언론의 항일정신을 상징하는 명 논설이다. 그 한 편의 논설만으로도 언론 역사에 미친 영향은 측량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국사를 결정하는 장관들의 국무회의가 언론인의 사표(師表) 장지연의 서훈(敍勳: 독립장-1962년)을 박탈하기로 의결하였다. 서훈 취소를 결정한 국무회의는 한말 대신들이 취한 태도보다 나은 구석이 있다고 보는가. 장지연을 굳이 친일파로 몰아 무슨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인가.

고종도 전면에 나서지 못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국록(國祿)을 먹던 대신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 떨며 감히 저항하지 못했던 살벌한 분위기에 단 한 사람 장지연은 ‘시일이방성대곡’으로 목 놓아 울며 대신들의 무능과 장차 나라가 망하게 될 통분함을 소리 높여 외쳤다. 일제의 총칼이 어찌 두렵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는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다. 지하의 장지연이 이번에는 좌파세력에 농락당하는 이 나라 장관들의 소신

없음을 소리 내어 통곡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2005년 5월에 정부가 구성했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인사 명단에서 장지연 선생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사를 다루는 최고 의결기관이

左派논리에 따른 국무회의 결정 한심 서훈취소참여 심사위원 왜 안 밝히나

그 결정을 뒤집어 장지연 선생에게 수여했던 서훈을 박탈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김일성의 세습왕국, 연호초차 그의 출생을 기준으로 ‘주체 몇 년’으로 부르는 정권을 지지하는 친북좌파의 논리에 부화뇌동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것인가. 책임을 통감하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어째서 서훈취소를 심사한 심사위원들을 공개하지 못하는가. 서훈을 취소한 자료조차 밝히지 못하겠다는 말인가. 언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긴 기간



韋庵 장지연 선생 근영.

독재정권과 싸우면서 시련 속에서 쌓아 올린 자유를 이런 식으로 방기하고 마는가. 정부가 자료와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중대한 위법사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

‘시일이방성대곡’과 같은 날 지면에 실린 ‘오건조약체전말(五件條約講締顛末)’은 이토히로부미의 강압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된 내막을 소상히 폭로한 기사였다. 전자는 ‘논설’이고, 후자는 ‘사실 보도 기사’, 스트레이트 뉴스이다. ‘오건조약체전말’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논설

과 사실보도 기사가 어우러져 상승효과를 내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황성신문은 나라 안에서만 파문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영국인 배설(裴說·Ernest Thomas Bethell)이 발행하던 대한매일신보와 영어신문 ‘코리아 데일리 뉴스’는 논설과 기사를 영어와 한문으로 번역한 호외를 발행했고, 일본에서 영국인이 발행하던 ‘재팬 크로니클’이 이를 전재하여 서방세계에까지 널리 알리게 되었다. 목숨 걸고 쓴 논설의 파급효과는 일제의 총칼로도 막을 수 없었다. 무장항일투쟁도 중요하다. 하지만 제한된 무장투쟁보다 언론의 항일은 더 넓고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일제 침략군의 군화발이 한반도를 유린하던 러일전쟁 이후 일제 강점기에 벌인 항일 독립운동의 방략은 다양했다. 총을 들고 싸우는 무장투쟁이 첫 번째였고, 민족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안창호의 무실역행(務實力行), 열강의 지지와 힘을 이용하여 나라를 되찾자는 이승만의 외교론 같은 여러 방안이 총화를 이루어 독립의 그날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던 것이다. ‘시일이방성대곡’은 무장 항일 투쟁에 불을 붙인 뇌관이었다. 서방 세계에 널리 알리는 홍보 선전의 효과도 막강했다. 후세 언론인들은 항일 민주화 투쟁을 벌이면서 마음속에 아로새기는 장전(章典)이 되었다.

‘시일이방성대곡’ 100 주년을 맞은 지난 2005년에 장지연기념회는 논설 집필 당시의 황성신문사 자리였던 종각역 영풍문고 쪽 출구에 기념논설비 건립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장지연의 친일논란에 좌파신문과 KBS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그때 이후 끈질기게 장지연을 친일파로 몰고 가는 세력은 국무회의까지 무너뜨리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다. [4]

2면에서 이어집니다.

따라서 자기네는 더욱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고 더 많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이 대목에서는 참으로 역사의 흐름이 아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개혁개방을 표방하던 중국이 텐안먼사태를 겪는 것을 보면서 북한은 더욱 더 주체사상에 몰입하였다.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고 절친하던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가 시민들에게 처형당하는 장면을 목격

하면서 김일성은 체제의 빚장을 더욱 굳게 걸어 닫았다. 이제 재스민 혁명을 보면서 김정일-김정은 부자는 더 많은 핵무기를 확보하겠다고 하니 왜 역사의 흐름은 북한만 비켜 가는지... 그리고 더 강고하게만 만드는지 모르겠다.

북한을 닮은 리비아의 독재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북한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에서 민주화 봉기가 일어나면 리비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 확살극이 벌어질 수 있다. 카다피가 아무리 김정

일을 흉내 내도 김정일이 구축한 호위 시스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평양에는 오직 김정일 개인만을 보위하는 호위총국 산하 10만 특수부대가 있고 정찰총국 산하 작전국 특수병력 1만명은 특수무기를 갖춘 북한판 ‘백가이버’ 부대다. 평양방어사령부를 포함하면 김정일 개인을 사수하기 위해 20만 병력이 평양에 집결해 있다. 지방에서 어떤 반란이 일어나도 김정일에게 온갖 혜택을 받고 있는 호위총국 하나로도 얼마든지 평양 사수는 가능하다. 여기에 휴전선에 배치

된 60만 정예군대는 호위총국다음으로 김정일 체제에서 혜택 받은 집단으로 이들 역시 유사시에 감씨 왕조를 지키는 수호세력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북한 김정일이 카다피에게 배웠을 교훈이다.

김정일은 국제사회가 국민보호책임이란 개념을 쓸 수 있고, 핵무기를 버리면 재래식 전력만으로 사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재스민 혁명은 탱크도 미사일도 핵무기로도 누를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4]

신문서도 잊혀져 가는 ‘신문의 날’

신문에 신문이 없다. 지난 1957년 4월7일을 신문이 날로 제정, 올해 제 55회 기념일을 맞아 행사를 치렀다. 그러나 매년 그 행사의 열기가 식어져 가는 가운데 막상 생일의 주인공인 신문에서조차 소홀히 취급돼 신문인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특히 인터넷 매체 등 디지털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종이 신문은 점차 사양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때에 신문이 날 제정 의미를 되새기고 매스 미디어의 원조로서 신문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함에도 신문이 날마저 사양화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신문의 날 4월 7일은 1896년 이날 서재필박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으로서 한글전용 띄어쓰기 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한 날이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1957년 결성됐다. 독립신문 창간 61주년에 해당(독립신문은 1899년 12월 4일 폐간)하는 그 해 4월7일을 신문이 날로 제정, 그 뒤로 해마다 이날 기념행사를 열어 오고 있다. 제1회 신문이 날 행사는 서울 명동 시립극장에서 개최, 신문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신문이 날이 들어 있는 한 주를 신문주간으로 정해 각종 기념행사를 잇달아 열었다. 그 뒤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신문의 사회적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고 자유와 품위를 강조는 계기로 삼아왔다. 제 55회 신문이 날을 맞은 올해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어느 해보다도 쓸쓸하고 허전해 보였다는 게 다수 참석자들의 의견이었다. 언론단체 관계자 등 언론인들이 참석한 것 말고는 3부 요인 가운데서 박희태



최희조

- 본보 편집위원
-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 중부대 초빙교수

올 55회 기념행사 쓸쓸한 분위기 인터넷 잠식 불구 ‘정신’ 이어가야

국회의장이 눈에 띄는 정도였다. 지난 날 대통령도 자주 참석하는 등 각계 인사들이 많이 참석해 신문의 날을 축하하고 덕담을 나누는 꽤나 성대한 행사였는데 비해 외형적인 행사 치레마저 초라해져 가는 분위기였다. 올해 신문이 날 표어를 공모해 ‘정확한 소식, 정직한 소리, 정다운 신문’을 대표작으로 선정하고 신문주간에 자축 공동광고 게재, 6일 저녁 기념식 후 리셉션 개최 정도가 신문의 날 행사의 전부였다. 올해만 유독 그랬다고 할 수는 없다. 언제부터인가 신문의 생일 날 기념

행사가 쇠락해 갔다. 그런데 그나마 예년 수준의 겉치레 도식적 기념행사일 망정 신문지면에서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신문인들 말고 신문의 날을 누가 알겠는가. 신문에서 보도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신문 자신들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신문의

년 29%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8년 사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같은 기간 열독률도 82%에서 52%로 낮아졌다. 매스 미디어의 원조로서 가장 신뢰받는 영향력 있는 신문 위상이 텔레비전에 밀리고 최근에 와선 포털 사이트에 비껴 나 있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1세기가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이미 작년에 종이신문 인쇄를 중단하고 인터넷 신문만 발행하기 시작했다. 경영난으로 이렇게 종이신문에서 인터넷신문으로 넘어가는 신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게 오늘날 신문산업의 실상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마저 시기는 미정이지만 언젠가 종이신문을 접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는 정도이다. 미국 MIT의 미래학자 니컬러스 네그로폰테 교수는 “종이신문은 5년내 사라진다고 예언한바 있다. 어떻게 보면 신문의 날은 이제 단순히 챙겨야 할 기념일에 그치지 않을 지 모른다.

종이신문의 퇴락을 반영해 신문의 날 자체가 소멸해 갈지도 모른다는 애기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신문의 기능과 원형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다만 종이신문이 인터넷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럴 수록 신문의 날은 신문들이 더욱 더 알찬 기념일로 챙기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4]

KAIST 개혁-경쟁 계속돼야 한다

역사는 경쟁을 먹고 살아왔다. 총을 들고 경쟁을 벌이면 전쟁이 되고 자연과의 경쟁이면 도전이 된다. 총을 들지 않고, 당장 죽고 사는 것이 아닌 느슨한 경주를 흔히 경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총을 든 전쟁이나 시퍼런 쓰나미가 밀어닥치는 자연재해와의 싸움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승자와 패자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구과학문명을 먼저 받아들인 일본에 의해 나라를 뺏긴 경험을 했고 1950년 6월에는 탱크를 비롯한 강력한 과학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거의 부산 앞바다에 빠질 뻔한 위기를 당했다. 과학기술경쟁에 낙오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처참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영재성을 띤 학생들을 모집하여 국가가 등록금을 주면서 KAIST 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세계적인 과학기술인재를 나라가 그만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KAIST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수재들이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같은 세계적 과학인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팽팽한 국제경쟁을 해가는 인재학교이다.

금년 들어 KAIST학생4명이 잇달아 자살한 것과 관련하여 KAIST의 경쟁체제 자체를 힐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온 여론위에 군림했다. 경쟁체제를 강화한 서남표 총장에 대한 인격적 공격을 가한 사태도 벌어졌다. 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자살이라는 풍조가 KAIST에 급격히 밀어닥친 상황에 관한 것이다. 자동차소유가 보편화되기 전 연탄가스로 인한 사고사가 많았다.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고 조심을 해야 한다는 글을 써대는데도 여전히 아궁이 관리를 잘못하거나 연돌이 새거나 하여 밤새 목숨을 앗아갔다. 연탄사고가 사라

時 論



정일화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
- 정치학 박사

진 후 자동차사고가 증가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로 인한 연간사망자수는 1만3천명 선을 넘었다. 월남전 참전 전기간을 통해 낸 총 전사자가 4천9백60명인데 비해 턱없이 많은 것이다. 도로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캠페인이 강하게 실시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떨어져 현재는 7천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신 자살이 크게 늘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2008년 현

재 자살자는 1만2천8백5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의 나라가 되었다. 대통령을 지낸 노무현씨, 일류배우 최진실씨도 자살을 해 대한민국이 자살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연령별 직업별로 따져 자살이라는 병이 침투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결국 최

고의 과학영재들이 다니는 KAIST로까지 병이 번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살은 우리사회를 전반적으로 실망케 하는 병이며 따라서 KAIST라는 특수한 대상에 국한하기 보다는 좀더 광범하고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KAIST에 자살이 났다고 해서 KAIST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둘째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모두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합당하느냐하는 문제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개인은 자유와 존엄성이 보장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과 존엄성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전직대통령이 자살한 것을 두고 한국정치가 그를 죽였다고 말하고 화려한 일류배우를 지낸 사람의 자살이 한국 영화계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자살했어야 할 것이다. KAIST는 고등학교과정을 통해 격렬한 경쟁체제를 이기고 올라온 학생들이고 이 대학에 가면 더 높은 차원의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KAIST라는 높은 문턱을 올라섰다.

5면으로 이어집니다.

종이신문 위기 벗어날길 없는가

신문은 민주주의 발전의 한 축

종이신문은 사라지는가. 인터넷 확산으로 종이신문구독자들이 줄어들고 있음에 따른 우려에서 이다. 이런 판에 호주의 미래학자 로스 도슨은 최근 ‘퓨처익스플로레이션네트워크’에 게재된 발표문에 전 세계 52개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종이신문들이 2017년부터 2040년까지 차례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발표대로라면 미국신문은 7년내(2018년)에 가장 먼저 없어지고 한국은 벨기에와 더불어 2026년에 사라진다고 예측했다. 가까운 일본은 2031년에 없어지며 2040년에는 지구상에서 종이 신문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유는 “미디어 산업의 대 변혁으로 선진국에서부터 이미 신문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글로벌 보편성과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도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기 보급 속도와 적응도가 빨라 신문 소멸 시기가 비교적 빨리 올 것으로 전망한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생명이 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유는 신문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활발한 때문이다. 이들 나라는 “신문 위기는 곧 민주주의 위기”라는 믿음아래 현금지원부터 저리융자 배달 판촉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문은 광고주를 만족시키는 매체

한편 신문은 존속된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이유는 “신문이 민주주의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온 전통매체”일 뿐 아니라 “신문이 독자와 광고주를 모두 만족시키는 최고의 매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김재호 한국신문협회 회장은 이번 제 55회 신문의날 기념사에서 “엄청난 뉴스 홍수 속에 그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제시해 주는 것은 역시 신문이 유일한 매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신문은 영원히 발전할 것임을 강조했고 김인규 한국방송협회 회장은 “뉴스처리를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기준으로 하는 매체는 역시

신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신문협회(NAA)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10명 중 7명이 신문을 읽고 있다고 밝히고 신문 독자 중 3분의 2가 신문광고를 읽고 있는 만큼 더욱 신문은 발전할 수 있는 매체라고 주



홍원기
·본회 회장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중후반부터 신문시장이 급격히 변화했다. 그런데도 각 신문사들은 이런 변화를 외면하고 오히려 증면경쟁, 확장지 살포, 구독료덤핑, 자매지 끼워 팔기 등 과당 경쟁에 몰두했다. 일선 지국이 어

치 등 시설 투자와 기자수를 늘리는 등 몸집 불리기에 몰입하다가 IMF 위기를 겪고부터 큰 경영위기를 맞게 됐다.

이제라도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정말 깊이 고민해야한다.

판매조직을 살려야한다

우리나라 신문이 어려워진 이유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인터넷’ 확산 때문만이 아니다. 일선 판매시장 변화를 외면한 채 벌여온 과당경쟁과 일간신문의 난립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일간신문은 1980년대 언론통폐합 당시 29개 사이던 것이 이제는 무려 330개사에 이르고 있다.

신문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못지않게 독자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신문을 어떻게 배달

할 것인가를 찾아야한다. 바로 이것이 신문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신문이 사는 길

우선 판매조직을 살림과 동시에 새로운 콘텐츠 판매로 수익증대를 꾀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매직 등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이웃 일본은 신문판매 종사자중 우수한 젊은 이들을 선발해서 ‘넓은 시야를 가진 인재로 키운다’는 목표로 판매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구독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신문구독료는 외국에 비해 너무 싸다. 현 구독료 15,000원은 신문 용지 값조차 안 된다.

그렇다고 무가지를 배포 하는 판에 어떤 명분으로 구독료를 올릴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그러니까 구독료 수입만으로 운영하는 일선 지국은 날이 갈수록 채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가지 살포 등 과당경쟁을 중단하고 우선 일선 지국이 ‘돈 버는 사업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웃 일본 신문구독료는 월 3,900엔(우리 돈으로 5만7백원)에 달한다. 그래서 일본 신문판매점은 ‘돈 버는 사업장’으로 정착돼 있다.

신문유통원 지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등 한국신문협회와 판매협의회를 주축으로 신문지국을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4]

판매조직 활성화로 생산성 높여야 과당경쟁 지양 구독료현실화 필요

장했다.

문제는 ‘마케팅’에 달려 있다.

파는 조직과 쓰는 조직

기업 조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지게 마련이다. 하나는 파는 조직(돈을 벌어들이는 조직), 이고 다른 하나는 쓰는 조직(돈을 쓰는 조직)이다.

신문사 조직으로는 판매국, 광고국이 파는 조직이고 편집국, 기획실, 총무국 경리국이 모두 쓰는 조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파는 조직’이 돈을 벌어들이지 못할 경우 ‘쓰는 조직’이 아무리 우수한 머리로 융통성 있게 관리 하더라도 경영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어느 기업이든 많이 팔아 이익을 내야 한다. 판매(Sales)-비용(Expense)= 이익(Profit)이라는 기본 등식이 성립해야한다는 뜻이다.

어떻든 판매는 기업의 본질이고 기업 활동을 운택하게 만드는 것이 판매이다. 판매활동이 생산성을 좌우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등식은 본사뿐 아니라 일선 지사지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한다. 우리나라 신문판매는 대체로 일선 지사지국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신문시장 변화에 둔감했다

그러니까 본사는 물론 일선 지사지국부터 신문을 많이 팔아 자립운영이

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조차 살피기를 피한 채 심지어 신문 구독료조차 받지 않고 6개월 내지 1년씩 무가지를 돌려 신문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되자 우선 일선 지국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본사는 증면으로 광고수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일선 지국은 무가치 배달과 증면된 만큼 배달인건비가 늘어남에 따라 지국 운영이 어려워진 때문이다.

신문 지국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보증금을 본사에 예치하고 상당한 권리금을 내야 지국운영권을 얻을 수 있었다. 80년대 초반까지의 상황이다.

이제는 권리금은커녕 보증금 없이 지국운영권을 주겠다고 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각 신문사별 독립 지국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으며 공동지국운영체제로 변해가고 있다.

A 신문지국이 B신문, C신문 등 여러 신문지국을 운영하는 체제이다. 보통 2-3개 신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번두리 지역은 전체 신문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신문배달원 한 사람이 우편집배원처럼 A신문, B신문, C신문 등 여러 신문을 배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각 신문사는 금융 부채를 끌어들여가며 지방공장 설

은 찾아야 할 것이다. 모든 학생을 원칙적으로 좀 낮은 액수의 등록금을 내게 하고 훌륭한 성적을 내면 낼수록 더 높은 장학금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예 장학금을 받지 않고 다니겠다는 학생도 뽑아야 한다. KAIST가 이번 고비를 계기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쟁제도를 도입하기를 바란다.

노무현전대통령이 자살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를 죽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기도 했고, 최진실 같은 톱 클라

스 배우들이 자살했을 때 한국영화계가 저들을 죽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 바닥에서 화려한 삶을 보낸 사람의 자살을 그 바닥의 책임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논리가 맞지 않은 것과 같이 도무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남들이 감히 오르지 못하는 위치에 오른 후에, 잘나지 못하고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죽음을 스스로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서는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길러내야 한다.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미국 같은 나라의 하늘을 마구 날아다니는 천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사망자수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연1만 명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자살자수는 2008년 현재 1만2천8백58명이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KAIST에게 이 흙탕물결을 막으라고 요구하기는 너무 무리다. [4]

4면에서 이어집니다.

미국 일본 등에는 엄청난 과학기술인재들이 날아다닌다. 국가가 엄청난 장학금을 주면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라는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대학에 경쟁체제를 없애거나 낮추려는 것은 과학기술이 없어 지난 날 나라가 망했고 망할 뻔한 우리의 역사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순진한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경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

금융전산망 사고 밋밋한 책임추궁

상식을 벗어난 장기간의 농협 금융 전산망 서버 마비로 금융대혼란이 일어났다.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 이용자 등 3,000만 명의 고객들에게 준 물적, 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미증유의 초대형 금융 전산망 사고는 입만 열면 정보화 강국이고 디지털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IT 실상이 얼마나 이롭지만지를 웅변하고도 남는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여신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 서버에 해커가 침투하여 43만 명의 고객정보를 빼낸 뒤에 거액을 뜯으며 협박한 사건까지 일어났다. 문제는 협박당할 때까지 해킹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정보화 강국은 인터넷 보급률이 전부가 아니다. 통신사들의 담합으로 OECD 최고 수준의 통신비용을 물면서 국민에게 바가지 씌우는 것을 허용하는 정부의 정보통신정책은 도대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금융전산망 보안을 위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유력자들은 사설로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지만 대책 촉구에 있어서는 역시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동아일보는 4월15일 사설에서 “금융기관 경영에서는 고객이 맡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보안이야말로 핵심적 과제지만 상당수 금융회사에서 ‘보안 투자’는 경영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다. 일련의 불상사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보안대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자를

늘리는 계기라도 된다면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문화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금융회사들의 전산망이 속수무책으로 뚫리는 황당한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건 정보기술(IT) 강국을 무색하게 하는 수치다”라고 말하고 총자산 190조원에, 고객 3,000만



김영환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그 백업체계 구축과 전산망 설계 및 관리 업무의 통합 등에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4월 14일 “북한이 은행 등을 해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에 의한 사이버 상에서의 (우리나라 금융전산망에 대한) 해킹 가능성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

는 금융전산망의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번 두 개의 금융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만능을 외쳐도 디지털 기록이 지닌 취약성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나라 IT경쟁력은 후퇴 중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가 2010년 발표한 국가별 IT 경쟁력 지수를 보면 한국은 2008년 8위에서 2009년 16위로 밀려났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국가정책의 귀책 사유가 클 것이다.

과거 정보통신부는 젊은 엘리트 공무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정부 부처였다. 그런데 업무를 승계한 지식경제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고 정작 가장 중요한 정보통신정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디지털 신용사회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데 문자메시지 무료화나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인상을 들먹일 계제는 아닌 것이다.

북한의 디도스 공격도 그렇고 현대캐피탈과 농협전산망 사고도 그렇다. 지금의 지경부나 방위위로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된다. 정보통신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의 부활이 절실하다. 아날로그적인 정부조직은 여러 가지 명령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멀티태스킹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금융전산망 사고와 관련하여 언론은 마땅히 관련 주무부처 기능의 대폭 강화와 관리가 엉망진창인 철법통 농협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촉구했어야 했다. [4]

情通部부활동 근본대책 촉구 없어 아날로그적 정부조직 무력 드러내

명의 거대 금융회사로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금융전산망 문제를 국가 기간시설 보호라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14일 사설에서 “관리업체 직원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나온 잘못된 명령이 원인이라면 그나마 다행으로 여길 수 있다. 만에 하나 외부의 해킹이나 고의적 행위 때문이라면, 앞서 현대캐피탈 사건과 같은 고객정보의 대량 누출은 물론이고 일부 금융자산의 불법 이동 등 일파만파로 번질 뻔했다”라면서 “아날로

도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북한의 해킹과 관련한 기술 능력을 폄하해선 안 된다. 국방부 시스템은 인트라넷(내부 전산망)으로 돼 있어 해킹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최근 북한의 해킹 대비 등 사이버전 강화를 위해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만들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은 점점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결제나 폰뱅킹 등 전자 지불수단의 보호를 위해서

“돌아갑시다. 돌아가요”

지진에 흔들려 파랗게 질릴때 마다 들었던 집사람의 공포에 찬 귀국타령이다. 이윽고 그것은 “지진만 없으면 살기는 편한데...”로 바뀌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죽을것 같았던 지진의 무서움은 간사하게도 잊어지면서 또 새로운 하루이틀이 쌓이고 쌓여 일본 오사카(大阪)에서의 생활은 30여년이 넘었다.

교토(京都)의 아라시야마(嵐山)하면 벚꽃과 단풍의 명소이다. 벚꽃이 지고 진초록잎이 무성한 5월의 제3일요일에는 이곳 가쓰라가와(桂川)의 상류에서 미후네마쓰리(三船祭)가 베풀어진다. 배를 타고 아악(雅樂·중중음악)에 맞춰 고전 무용을 추고, 하이쿠(俳句·短詩)를 지어 읊은후 시를 쓴 단자쿠(短冊)를 무용부채와 함께 나란히 강물에 띄워 보낸다.

교토에서 마쓰이(松井) 진주연구소를 운영하는 친구인 마쓰이 준페이(淳平·작고)씨와 부인 아키코(昭子·歌舞伎師範) 여사는 1983년도 마후네마쓰리의 후원자로 우리내외를 초청 했었다. 낡은 풍치에 눈이 부신 마쓰리가 끝난 후 두 내외가 저녁식사를 위해 들른 곳이 이 관광지의 시니세(老舗)인 유도후사가노(湯豆腐差肴)였다. 두부를 살짝 데쳐서 양념간장에 찍어 먹는 맛이 천하일미였다.

내외끼리의 자리였으므로 화제는 물론 한국의 김치와 일본의 지진, 그리고 진주양식에 집중되었다. 그때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김치의 깊은 속을 모르고 있었다. 도시샤(同志社)대학 이과 출신인 마쓰이씨 조차도 “간상(金兄)은 마늘이 많이 든 김치를 먹어 감기에 안걸려 좋겠다”는 정도의 인식이었다. 김치를 자랑하는 마음에서 “배추를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젓갈 등 양념에 버무려 서늘한 곳에서 젓산생성을 통해 발효시킨 것이 김치”라고 설명한 후 그 종류가 많음도 덧붙였다.

이어 지진이 무서워 못살겠다는 화제가 나오자 마쓰이씨는 “니시니혼(西日本)에는 큰 지진이 오지 않고, 안젠가는 도카이(東海)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아마도 히가시니혼(東日本)의 태평양 연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같은 설은 당당히 일본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었다. 그런데 그 상식이

귀국타령 되풀이 日本지진 體驗記



김귀제

· 본회 원로 회우
·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비상식으로 둔갑하는 날이 왔다.

1995년 1월 17일 새벽 5시 46분, 고베(神戸) 남쪽의 아와지(淡路)섬 호쿠단초(北淡町)의 야시마(野島) 단층을 진원으로한 진도 7.3의 지진이 일어났다. 한신(阪神) 아와지대지진이다. 진원이 곧은 아래쪽이라 드물게 보는 세로 흔들림을 동반한 도시직하형(都市直下型) 지진이

다. 밑에서 위로 올려 받치는 지진이다.

그무렵 우리는 오사카시의 동쪽 교바시(京橋) 근처의 아파트 단지 12층에서 살고 있었다. 그날 아침, 그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심한 흔들림에 눈을 떴다. 몸을 가눌 수가 없어 누운채 양팔로 바닥을 짚고 몸을 지탱했다. 천장의 형광등이 마음껏 요동치고 있었다.

우리창이 빼격거리는 소리와 함께 옆방에서 “지진이다!” 집사람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다. 숨쉴 겨를도 없이 이번에는 배꼽 뒤쪽인 척추 3번과 4번 변두리를 몽둥이로 쿡쿡 찌르는 듯 한 세로 흔들림이 몸을 아래위로 흔들여왔다. 말이 막혀 안나온다. “이집이 무너지면 깔려죽는구나” “설마하니 무너지기야 할까” 명암이 엇갈린 후 진동은 차차 가라앉기 시작했다.

벌떡 일어나 TV를 켜고 NHK쪽으로 돌렸다. “효코켄(兵庫縣)을 중심으로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변화가인 산노미야(三宮)가 전멸한 것 같습니다. 고베 시내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모두 끄고, 가스전은 잠가주세요.”

지진 속보가 계속됐다. 잠시후 과수의 울음소리 같은 땅울림과 함께 제2파가 옹골찬 울림으로 왔다. 약간 약하다. 그래도 몸가늠이 안돼 앓은뱅이가 된 채 가라앉기만을 기다렸다. 일본기상청은 오사카의 지진을 진도 3.7로 발표했다.

어딘가 크게 부서졌으리라는 불길한 마음으로 집안팎을 살폈다. 현관의 신발장위에 세워뒀던 장식접시가 떨어져 깨지고, 책상과 화장대위의 물건들이 쓰러지거나 굴러 떨어져 있었다.

“돌아갑시다. 돌아가요” 집사람은 떨고 있다.

일본에서 볼런티어 원년(元年)이 시작되었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포퓰리즘 행태 따라가는 TV 뉴스

대한 언론 300호 기념 특별 대토론회가 지난 3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주제가 ‘한국의 포퓰리즘’이었다.

포퓰리즘과 관련한 정치와 언론의 문제를 지적한 두 분의 주제발표에 공감아 갖고 감명을 받았다.

주제 발표자들은 특히 역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의식이나 국가관, 식견 등에서 최악이며 언론도 요즘의 기자들이 가장 형편 없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문제가 심각한 데도 회초리를 들 수도 없고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 더 큰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한 가운데에 포퓰리즘이 있다고 설파했다. 이를 계기로 방송의 포퓰리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짚어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의 포퓰리즘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여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을 의미하며 대중영합주의로 설명하기도 한다.

정치에서의 포퓰리즘을 그래서 표퓰리즘이라고 애둘러 표현하는 이들도 있다. 이를 방송에 원용하면 일반시청자의 인기에 영합하는 방송행태,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방송, 대중 영합주의적 방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청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매달리는 방송행태를 好퓰리즘 방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방송의 好퓰리즘적 실태를 지적해본다. 포퓰리즘의 뿌리는 이기주의에 있다. 따라서 공익을 추구하는 방송, 특히 공중과 방송은 포퓰리즘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뉴스에서는 더욱 귀한 가치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뉴스의 포퓰리즘적 실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와 관련한 뉴스에서도 확인됐다. 신공항 유치공약 자체가 포퓰리즘적 공약이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문제이며 이의 백지화를 둘러싸고 영남권에서 보인 반응은 지역 이기주의의 압권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발표를 호기로 삼은 박근혜 전 대표와 야당의 반응은 한마디로 다음 선거에서의 표만을 겨냥한 표퓰리즘의 샘플일 것이다.

정부일에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야당이야 그렇다치고 모처럼 반응을 보인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라면 최소한 밀양으로 하겠다든가, 가덕도도 아니고 제삼의 장소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든가 하는 발전된 내용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런 타당성 때문이라는 구체적인




호천웅

- 본보 편집위원 • 수필가
- 전KBSLA지국장

신공항문제등 국익차원 보도 외면 지역이기주의 제대로 된 지적 못해

정책을 제시했어야 할 일이었다. 뉴스를 시청하면서 짜증이 났고 딱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대통령의 공약취소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와 영남권 지역이기주의 그리고 국익의 문제가 얽힌 국가대사를 다루면서 주요 방송사들의 메인 뉴스는 발생한 상황들을 적당히 엮어 놓는 듯한 안이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아예 의식이 없든가 아니면 포퓰리즘의 강물에서 적당히 헤엄치는 모습으로 비쳤다.

발표 첫날인 3월30일부터 4월1일 까지 메이저 방송3사의 밤9시와 8시 뉴스를 모니터링한 결과 KBS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 했으며 아이템수도 가장 많았다.

첫날 보도 아이템에서도 MBC와 SBS가 각 4건 씩을 보도한 데 비해서 KBS는 6건을 보도했다. 보도내용 중에서 MBC와 SBS가 영남권의 반응을 한 아이템으로 처리한 데 비해 KBS는 부산권과 대구·경북권의 반발을 각각의 아이টে으로 보도해 지역이기주의를 드러내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3일간의 보도에서 30일 SBS 뉴스 앵커의 “선거를 앞두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한나라 영남권 의원들 가운데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는 멘트와 “표를 노린 무책임한 공약들 때문에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31일 MBC 뉴스 앵커의 멘트 정도가 나름대로 지역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을 지적했을 뿐이었다.

전체적으로 봐서 방송3사의 동남권 신공항 계획 백지화 관련 보도 태도와 내용은 대동소이한 양태로 보였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이나 LH공사

가 망쳐놓았다

는 멘트와 “표를 노린 무책임한 공약들 때문에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31일 MBC 뉴스 앵커의 멘트 정도가 나름대로 지역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을 지적했을 뿐이었다.

전체적으로 봐서 방송3사의 동남권 신공항 계획 백지화 관련 보도 태도와 내용은 대동소이한 양태로 보였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이나 LH공사

가 망쳐놓았다

는 멘트와 “표를 노린 무책임한 공약들 때문에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31일 MBC 뉴스 앵커의 멘트 정도가 나름대로 지역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을 지적했을 뿐이었다.

전체적으로 봐서 방송3사의 동남권 신공항 계획 백지화 관련 보도 태도와 내용은 대동소이한 양태로 보였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이나 LH공사

가 망쳐놓았다

는 멘트와 “표를 노린 무책임한 공약들 때문에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31일 MBC 뉴스 앵커의 멘트 정도가 나름대로 지역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을 지적했을 뿐이었다.

6면에서 이어집니다.

전국에서 매일 자원봉사자 1백 17만명이 피해지에 물려 구호품을 나르고 폐기물을 치웠다. 주택지의 거의가 목조건물, 무거운 기와지붕을 지탱못해 납작하게 접히듯 무너지면서 생존공간(生存空間)을 잃어버렸다. 가옥 압사자가 총희생자 6천 4백 여명의 78%에 해당하는 5천 여명에 이르렀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진도가 3이하 이지만, 언제 큰 것이 올지 모른다. 일본지진이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 서쪽은 우리나라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을 마음속 깊이 명심하고 모든 구조물에 대한 내진(耐震)강화와 법 국민적 지진대책 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7]

‘신문사진 인간애상’ 시상식 편집상에 박재덕 기자



좌로부터 한사람 건너 이동원 뉴시스 기자(우수상), 이제원 세계일보 기자(장려상), 변영욱 동아일보 기자(대상), 홍원기 회장, 이해복 고문, 박용운 회장, 박해묵 헤럴드경제 기자(장려상) 이명근 머니투데이 기자(장려상).

대한언론인회는 신문의 날인 지난 4월 7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클럽 19층 국화홀에서 2011년도(제21회) 신문사진 ‘인간애상’을 시상했다.(수상작 대한언론 4월호 참조)

이날 시상식에는 본회 이해복 고문, 홍원기 회장, 박용운 신문사진동우회 회장을 비롯, 본회 임원진 다수가 참석했다. 홍원기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 대상을 받은 ‘올해 버린 강철 사나이들’은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천안함 사건의 충격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생동감 있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하고, “신문사진 인간애상을 수상한 사진들은 모두 참 인간애가 살아 숨 쉬는 사진들로서 사진기자의 사명감이 크게 돋보였다”며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대한언론인회는 이날 동아일보 편집부 박재덕 기자에게 신문사진 인간애상 편집상을 시상했다. [7]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내포(충남도청) 신도시로 모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쾌적한 환경의 명품 도시

- 사통팔달의 접근성(충남 1시간, 전국 2시간 내)
- 녹지율 50%이상, 에너지 절약의 저탄소 녹색도시
- 자전거 천국의 5無도시(전신주, 입식광고판, 담장, 쓰레기, 육교)

꿈을 이루는 투자환경, 충남발전의 중핵 도시

- 첨단 IT, BT산업의 산·학·연 첨단산업 클러스터
- 저렴한 조성원가(1㎡당 57만3천원), 최적의 투자 여건
주거 266만㎡, 상업 36만㎡, 업무 45만㎡, 산업 63만㎡ 등
- 밀집형 행정타운 조성 : 2012년 말까지 도청·경찰청·교육청,
유관기관·단체 동시 이전 추진

미래인재 양성의 교육 특구, 내포문화의 신 르네상스

- 열린학교 중심의 교육 타운, 고품질의 문화·복지·의료시설

newcity.chungnam.net

유명인 恥部마케팅과 대중 觀淫症

학력 위조로 대학 교수가 되고 유부남 고위관리와 스캔들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실행까지 복역했던 신정아의 사생활 고백서 '4001'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책 제목 '4001'은 그녀의 수인번호로 지난 3월 22일 5만부를 출간해 지금까지 2만부 넘게 팔렸다고 한다. 상식과 인륜을 일탈한 막장드라마를 시청자가 '욕 하면서 본다'고 신정아의 책 내용을 '쓰레기'라고 폄하하면서도 읽는 것은 '신정아의 치부 마케팅'과 '대중의 집단 관음증'이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신정아는 책 출간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책 내용의 위험성과 폭발성을 예견했고, 언론은 사건보도라는 미명 아래 대중의 집단관음증을 부채질했다. 대중이 신정아의 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신정아의 처절한 자기반성(자기반성은 없지만)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 교훈을 얻거나 권력사회의 비리 고발로 통쾌함을 카타르시스 하기보다는 상류사회 유명 인사들의 배꼽 아래 이야기에 쏠려있다고 본다. 유명인사 아랫도리 이야기는 대중의 호기심 표적이다. 인기 연예인의 스캔들이 인터넷의 최상위 인기목표인 것도 다 이런 이유다. 신정아 씨나 출판사도 바로 이 점을 노렸을 것이다.

치부 마케팅은 진실 여부를 떠나 일시적이나마 대중의 호기심 관심 대상이다. 더욱이 상류사회에서 사회적 대접을 받고 있는 유명 인사들의 부도덕성은 대중에게 유명인의 도덕성은 자신들보다 못하다는 위안과 위로를 안긴다.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계층 양극화에서 어떤 것이든 간에 상류사회에 속한 인사의 추락은 대중에선 고소한 안주거리이며 심리적 복수다.

정운찬 전 총리="나에게 미술관장직과 교수직을 제의했고 밤 10시에 호텔 바에서 만나자고 했다. 도덕관념은 제로였다. --- 슬쩍슬쩍 내 어깨를 치거나 팔을 건드렸다"

C일보 C기자="운전기사가 있건 없건 똥뿔 단추를 풀려고 난리를 피웠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법정 서면 증언 인용) "장시간 실랑이 끝에 결국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관계 후 깜짝 놀랐습니다. 신정아는 그것이 첫 경험이였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기자회견 때마다 의견 물었으며 대변인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사건 터진 후 미국으로 출국, 미국 체류) "귀국을 말렸다"

이 같은 책 내용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서울대 총장 재직시 부끄러운 행동 한 적 없다"고 말했고, C기자는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고,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트위터에 썼다.

책에 등장한 남자가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한다면 법정에서 진실공방이 전개될 것이고 대중의 호기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신정아가 부풀려 썼을 수도, 아니면 더 추악한 배꼽아래 이야기가 터질 수도 있다. 관심은 책 속의 남자들이 신정아의 추가 폭로에 대한 인격과 체면의 망가짐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송을 택

할 것인가에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스캔들을 장시간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현실적 계산으로 소송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소송을 하면 책 마케팅만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생각도 펼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현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時 論



김 화

- 본회 전문위원
-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 현 데일리 리뷰 논설실장

신정아冊 출판 가치관 흔들 우려 상류사회 부도덕성에 경종 효과

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제2항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실(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은 된다.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는 그 죄 값은 더 무겁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남의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법 취지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남의 얘기라도 진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풀어 해석하면 신정아의 책 내용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신정아 자신의 개인적 고백이라는 건이다. 책 내용도 자신의 가족관계, 어머니와 자신을 노 전 대통령에게 소개하게끔 해준 외할머니에 대해 자상하게 언급했다. (한 일간지는 책 속에 등장한 외할머니와 실제 외할머니는 다른 것 같다고 취재 보도) 남 얘기 아닌 개인 고백이므로 법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의 시각은 다르다. 공익

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여론의 지지를 받아도 법적으로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에세이 형식의 사적인 토로의 글이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다. 사실여부가 철저히 검증되지도 않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한 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어떻게 공익성에 해당될 수 있겠는가 논쟁의 핵심이다.

신정아 씨 나름대로 할 말도 있고,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책 '4001'의 가장 아쉬운 점은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신정아의 자기반성이 없이, 뉘를 것이 더 이상 없는 사람의 마지막 선택처럼 보인 것이다. 그래서 누리꾼들은 '트윈 스키 스캔들'이 연상된다고 했다. 신 씨는 자기반성이나 유명 인사들의 부도덕성을 사회정의에 입각해 폭로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이용한 출판 마케팅에 우선했는지 모른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폭로 자체로 끝낼 것이 아니라 폭로 이후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을 것이다. 치부 마케팅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사회의 문화가 키치(저질 퇴폐)화로 달리고, 그 키치문화가 사회로 부메랑이 되어 청소년을 타락시키고 있는데 기름에 물을 끼얹는 격이 될 우려도 있다. 상류사회 인사들과 함부로 어울리고 나서 보복일기를 써 출판하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청소년에게 심어줄 우려가 높다.

신정아 씨는 위조된 학력이나 유명인사들과의 사귀기로 또는 유명 인사들의 부도덕성을 개인의 고백으로 위장해 나락에서 탈출 명예와 돈을 거머쥐려고 하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과 땀을 흘린 당당한 실력으로 상류사회의 사다리를 올라가야만 했다. 위계와 폭로로 재기하기 보다는 자기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었다.

신정아의 치부 마케팅은 요즘의 한국 사회처럼 탐욕적 물질주의, 배타적 이기주의, 맹목적 성공주의가 풍미하는 시대에 공익에 대한 판단과 사회정의에 대한 가치관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희석시킬 개연성이 농후하다. 도덕적 철학관이 실종되고 길을 잃고 헤매는 한국사회의 혼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상류사회의 부도덕성에도 경종을 울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정아의 치부마케팅이 비난받는다면 상류사회에 속한다고 사회적 대접을 받고 정신적 사치를 마음껏 구가하는 유명 인사들의 비도덕성도 함께 비판받아야 한다.

우리가 현 상황에서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역사적 교훈이 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이다. 478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제국이 용병 경호대장에게 왕이 피살되고 이민족의 침입으로 멸망한 근본 원인은 '도시문화의 퇴폐'에 있었다. 당시 로마제국 귀족의 도덕적 타락은 극에 달했다. 신정아의 치부마케팅이나 상류사회 유명인사의 부도덕성 모두 오늘날 한국사회 도시문명의 퇴폐에 해당된다.☞

충남 홍성 용봉산 갑니다 본회 산악회 상반기 정기山行



대한언론인회 산악회는 상반기 정기 산행을 충남 홍성에 위치한 용봉산(해발 381m)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온갖 기암을 한군데 모이듯 한 바위 명산으로 높이는 낮지만 경치가 수려하고 기암괴석이 천하의 일품입니다.

충남의 명산 용봉산으로 산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 음〉

△ 일 시 = 2011년 5월26일 목요일

△ 산행장소 = 충남 홍성군 용봉산

△ 집합장소 = 오전 8시 프레스센터앞(시간엄수)

△ 신청마감 = 5월18일까지(수) 선착순 40명

※ 참가자는 꼭 010-5443-0063으로 신청 요망

△ 회 비 = 1인 2만원(가족동반 환영)

※ 산행뒤 수덕사 근처에서 뒤풀이 예정

2011년 5월4일

대한언론인회 산악회 회장 안 중 우

재산을 100% 물려주겠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세상 사람들 중에는 생전에 자기재산을 가족에게 액면 그대로 몽땅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받게 될 배우자나 자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상속인이 된 후에는 엄청난 상속세 때문에 재산이 크게 감소되어 놀라는 경우도 있다.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사전에 세금계획(Tax Planning)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우선 상속대상 재산을 파악하고 증여 혹은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른 다양한 절세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상속세는 과세미달자가 대부분이지만 과세대상인 중에는 수익, 수습익 등 고액납세자가 많아 납세자금을 마련치 못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때로는 공매를 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상속순위와 상속지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이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규정에 의한 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따른다. 예)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와 자녀 수 등에 따라 상속지분이 다르다. 간혹 상속인 중 유류분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서민층은 상속세 크게 걱정 인해도 된다

①일괄공제: 상속 당시 물려줄 재산이 부채를 공제하고 10억원(배우자 5억원, 자녀 5억원)이하라면 상속세 걱정할 필요 없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는 5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다만 위 금액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준다.

②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의 40%(60억원 한도)와 2억 원 중 큰 금

老後설계와 재테크⑥

상속세의 節稅 계획



홍용수

- 본회 회우
-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
- 전 한양대 겸임 교수
- NS자산관리 연구회 회장

액이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했을시는 80억원, 20년 이상 경영했을시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주택상속공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의 무주택자인 상속인은 주택 가격의 40% 한도로 최고 5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크게 높다

예)상속개시 당시 총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상속재산 10억원 이하 0%, 15억원 5.4%(8,100만원), 20억원 10.8%(2억 1,600만원), 30억원 19.2%(5억 7,600만원), 50억원 27.7%(13억 8,600만원), 70억원 32.7%(22억 8,600만원), 100억원 36.4%(36억 3,600만원), 150억원 39.2%(58억 8,600만원), 200억원 40.7%(81억 3,600만원). [박상근 교수(세무사 02)525-6767] '부동산세 핵심 절세포인트'에서 인용]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는 상속개시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거나 피상속인의 채무를 '한정승인'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의 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방법은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의 외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는데 통상 시가의 80% 이하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므로 차액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지만, 금융재산은 100%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은 부채 공제후 20%인 최고 2억원, 최소 2,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예) 10억원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부채 공제후 20%인 2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5,000만원을 갖고 있었으면 20%인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배우자 상속공제가 절세가 된다

부친이 연로하여 돌아가신 경우 나이 드신 모친에게는 재산 상속을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바로 상속하는 것보다 모친에게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 등록절차를 마치는 것이 절세가 된다.

시한부 환자의 재산은 가급적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속개시 1년 이내 처분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의 처분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처분재산의 용도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자녀들의 상속세를 줄이려면 변액, 종신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방법 있다

상속재산이 비교적 많은 사람은 훗날 자신의 사망 경우를 대비하여 자녀를 위해 자신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아들과 딸)를 상속인으로 한 변액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자신이 사망한 후 자녀들이 보험금을 받아 상속세를 낼 수 있다.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든가 그 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장례비용은 500만원을 초과하여 1,000만원까지 증빙에 의하여 공제해주는데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해 납골시설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해 준다.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 않는 것이 좋다

예)상속받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후 상속받은 상가를 5억원에 양도했을때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자금이 필요해 6개월 이내에 상속시보다 높게 감정을 평가받아 대출받은 경우는 훗날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 때보다 세금을 30%이상 더 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을 하면 30%의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4]

을 3월에 대한언론인회와 한국전립선관리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전립선 무료진료'가 보건당국의 제약사와 의사, 약사 간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무산돼 진료를 기다리던 많은 회우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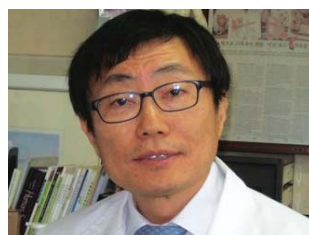
그러나 진료를 희망하고 있는 회우들에게 거의 무료진료에 가까운 저렴한 비용으로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본회와 공동으로 건강포럼을 진행 하고 있는 한편 본회 회원들의 무료진료를 두 차례 주선했던 이윤수 박사(비뇨기와 전문의)를 만나 무료진료 무산과 앞으로 전립선 진료 여부 등에 대해 알아 보았다.

-전립선 무료진료 계획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많은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고 언제 다시 할거냐고 물어오시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어떻게 된거냐고 전화하시는 회원도 있으시고 섭섭함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전립선관리협회에서도 그동안 보셨듯이 원로

회우 전립선 검사 실비로 추진 계획

건강포럼 이윤수 박사 인터뷰



전립선 검사계획을 밝히는 이윤수박사

언론인들을 예우하고 건강을 지켜드리겠다는 뜻으로 세 번째 무료진료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보건당국의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실시로 이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리베이트 쌍벌제'란 뭐죠?

"간단히 말해서 당국이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의사나 약사가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을 경우 양쪽을 다 처벌하는 쌍벌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 전립선협회가 무료진료에 나서

려면 제약회사나 의료기구업체의 도움 없이는 행사를 사실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료로 나눠주는 약이며 검사기구 제공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국은 이것도 리베이트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료일에 동원되는 첨단의료장비들과

구조물까지 감안하면 대형종합병원급 진료가 가동되는 것이고 또 현장에 의사와 약사, 장비 가동기사, 간호사, 보조원, 특수차량 운전기사등 몇 십명이 동원되려면 많은 경비가 드는데 이런 경비들을 제약사나 의료기기사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당국이 이런 것도 리베이트에 적용될 수 있다며 규제를 하니 무료진료에 나설 수 없던 것이고 부득이 무료진료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전립선 무료진료행사는 없다고 봐야하나?

"무료진료가 진행되는 곳은 정식으로 사망 100km이내에 종합병원이 없는 전국 도서벽지와 오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단체, 공무원, 특정학교 교직원 등의 무료진료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노인 복지 차원에서 대한언론인회와같이 어르신이 대부분인 단체는 제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회우들이 노령층이라 특히 전립선 질환이 특히 많은것 같은데, 사실 보통 병원의 검사비가 30만원 정도로 개인적으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좀 무리인게 사실입니다.

11면으로 이어집니다.

식료본초(食療本草)나 본초강목(本草綱目)을 통틀어 정선(精選) 한것은 아니지만 내가 양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지목하는, 내가 복용해 본 것들 몇 가지를 추려 보면 대충 이런것들이다.

구기자(枸杞子)는 본초강목이 상품(上品)으로 가름한 것이다. 성질은 차며 독이 없다. 본초강목의 풀이는 “몸을 가볍게 하여 늙지 않게 하며 눈을 밝게, 정신을 편안하게 하며 풍(風)을 없애며, 정기(精氣)를 돕고 대소장(大小腸)을 이롭게 하며 콩팥(腎)의 힘을 더하고 폐를 윤택하게 하여 사람을 오래 살게 한다.” 구기자는 예로부터 장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일컬어져 왔다. 옛날 장수마을의 우물가에는 구기자를 심어서 뿌리의 약성이 우물물에 녹아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구기자의 뿌리는 지골피(地骨皮)라는 이름의 한약재다.

건강을 돕는 한약재로 이름난 구기자도 요즘은 달여 마시기가 째짤하다. 익은 열매를 거두기 전에 벌레가 피어들어 농약을 살포하지 않으면 수확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건강에 좋기는커녕 농약잔류분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자양(滋養)을 뒤집으면 사약(死藥)이 되는가? 나는 값이 몇 배 비싼 유기농 구기자를 사서 달여 마시는데 그렇다고 자고 나면 바로 힘이 솟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면역력 증강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확실하다.

72kg의 체중을 60kg으로 줄여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나는 지속적인 걷기 운동과 거의 채식주의자에 가까운 곡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함으로써 순발력은 떨어졌으나 지구력은 관창은 편이다. 나이 80이라 순발력은 없어도 괜찮다. 저녁은 300칼로리 정도로 끝내고 이 글을 쓰고 있으니 지속력은 더 있을 것도 없다. 젊었을 때 그렇게도 푸지게 먹던 육식을 몇년전 부터 그만 두었으나 나에게 에너지의 공급원이 있다면 잣과 호두다.

잣은 솔씨라고만 알고 있었더니 본초강목에는 소나무(松)씨앗이 아니라 잣나무(柏)열매로 가름하고 있다. 송때 왕안석(王安石)의 자설(字說)에 “송백은 모든 나무의 으뜸(松柏爲百木之長)이라”고 했으며 측백나무인 잣나무(柏)는 “모든 나무가 햇볕(남쪽)을 향할 때 잣나무만은 홀로 서쪽을 향하

병은 낫는다 체험적 養生法 ⑦

맥거번 보고서와 食療의 세계 ①

니 이는 정덕(貞德)을 뜻하며 서쪽은 곧 금(金)이요, 빛깔은 흰 것이라 나무목 변에 흰 백(白)을 더붙인다”고 했다.

잣은 옛부터 선인(仙人)의 먹거리로 알려져 왔다. 풍습(風濕), 곧 습기로 뼈마디가 저리고 아픈 증상을 고치며 오장(五臟)을 편안하게 하며 장수를 돕는다. 간장



권도홍

- 본회 회우
-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 전 주부생활 부사장

것은 명백하다. 호두는 위산과다에도 효과 있다. 나는 원래 위산과다로 새벽에 늘 배가 살살 아팠으나 호두를 죽처럼 씹어서 먹으면 좋다는 당제(當劑)라는 중국 의서를 보고 그대로 했더니 지금은 아무 일 없다.

연뿌리(蓮藕)도 상품(上品)이다. 흔히 반찬거리로만 알지만 연뿌리는 기력을 돕고, 정신을 안정하게

구기자-잣-호두-연뿌리-녹두등이 좋아

을 윤택하게 하며 심기(心氣)를 기르고 안혼정백(安魂定魄), 곧 정신을 편안하고 맑게 하며 익지(益智), 곧 뇌(健腦) 식품이다. 피부를 맑고 빛나게 하며 옴(疥癬)을 고친다고 했다.

호두(胡桃)도 건뇌식품이다. 딱딱한 껍질을 깬 알맹이는 사람의 뇌와 흡사하다. 영인비건(令人肥健), 곧 사람의 살을 넉넉하고 건강하게 하며 피부를 윤택하게, 혈액을 형통하게 하며 기를 돕고 양혈(養血)하며, 익명문(益命門), 곧 왼쪽 콩팥을 돕는다고 했는데 한의학에서는 왼쪽콩팥을 명문(命門)이라 하며 오른쪽 콩팥을 신장(腎臟)이라 일컫는다. 그 까닭은 책을 덜 읽어서 잘 모르겠다. 온폐운장(溫肺潤腸), 폐를 따듯하게 하며 장을 윤기있게 하므로 호두는 변비에도 효과적인 건강 식품이다. 그러나 많이 먹으면 담(痰)이 생긴다고 했다.

나는 오랫동안 잣과 호두를 매일 조금씩(잣은 50알, 호두 2개) 장복해 왔으니 이 또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는

하며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 잘 늙지 않으며, 좀 과장의 느낌이 있는 ‘제백병(除百病)’ 곧 백가지 병을 없앤다고 했다. 심이경맥의 혈기를 돕고, 근골(筋骨)을 튼튼하게 한다고 했다. 연뿌리를 찌어서 죽을 쑤어 먹으면 사람을 강건(強健)하게 한다고 했다. 겨울에서 초봄까지 나는 연뿌리를 찌서 더러는 팔뚝의 반만한 것 한 개가 한 끼가 되는 수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배가 고프지 않다.

녹두(綠豆)도 상품(上品)이다. 장과 위를 두텁게(튼튼하게)하며 오장을 고루 편안하게 하며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원기를 돕고 녹두로 베개를 만들어 쓰면 눈이 밝아진다(作枕明目)고 했다. 옛날에 시골의 잔치집에는 녹두음식이 필수적이었다. 숙주나물, 빈대떡 그것은 대중식품이지만 녹두의 뛰어난 해독력이 그 바탕이 된다. 녹두를 삶아서 그 물을 마시면 당뇨병이 멎는다(止消渴)고 했으나 장복(長服)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

당귀(當歸)는 승검초의 뿌리다. 본초강목에는 중품(中品)으로 평가했으나 약효는 상품에 못지 않다. 오장을 보하고 일체의 풍(風)을 고친다는 데 풍(風)은 혈관성질환이다. 뇌졸중(腦卒中)할 때 졸(卒)은 갑자기, 중(中)은 풍을 맞는다는 뜻이다. 새피(新血)를 기르고 장과 위를 윤택하게 하고 보혈(補血)하며 피로를 덜고 허리 아픈데도 좋다고 했다. 맛이 별로이지만 나는 슬라이스한 당귀를 사다가 생수에 우려서 더러 마신다. 맛이 좀 과상해서 늘 마시지 않게 된다.

마늘도 뛰어난 건강식품이지만 본초강목에는 하품(下品)으로 가름한다. 하품으로 매긴것은 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식초에 담갔다가 먹는 초마늘이 좋다. 처음 마늘을 많이 먹으면 눈에 해로우나 오래 먹으면 되레 눈이 밝아진다(初食不利目, 多食却明)고 했으며 본초강목을 엮은 이시진(李時珍)은 오래 먹으면 간과 눈을 상하게(久食傷肝損眼) 한다고 했으나 효능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비와 위(脾胃)를 튼튼하게, 풍습을 없애고, 콩팥에 이로우며 곽란과 복통을 멎게 하며

오래 먹으면 피를 맑게 하나 머리칼을 희게(久食令人血清 使毛髮白) 한다고 했다.

옛날 산사(山寺)의 문에는 ‘훈주불허입사문(葷酒不許入山門)’이라고 써 붙였다는데 수양하는 스님들이 술과 마늘을 먹고 힘이 뻗쳐서 판생각 할까 해서 그랬을 것이다. 훈(葷)은 마늘 훈자이며 훈채(葷菜)하면 마늘·파·부추 따위 냄새나는 야채를 일컫는다.

고대 본초학의 책에는 없으나 양파·토마토·양배추·당근·호박·고구마·피망·브로콜리·아스파라거스·시금치·미나리 따위도 아주 좋은 건강식품이다. 피를 맑게하고 장을 깨끗하게 하므로 약이나 다름바없다.

고(高)콜레스테롤증(症)이나 고지혈증(高脂血症)은 식생활개선으로 거뜬히 고칠 수 있다. 육식을 줄이고 적게 먹고, 위에 든 식품을 늘 먹게 되면 병원에 갈 것도 없다. 선택과 지속력이 힘ियो 치유력이다. 전에는 늘 200선을 넘던 나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금은 160선을 유지하고 그 중에 유익한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이 50을 넘으니 혈관성 질환은 멀리 있다 할 것이다. [4]

10면에서 이어집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3년이상 대한언론인회와 건강포럼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데 저는 그동안 제 병원을 찾는 대한언론인회 어르신들에게 특별 우대를 해드렸습니다.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또한 노인배려 차원에서 앞으로도 실비만으로 종합병원 차원의 진료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배뇨장애증상지수 체크, 채혈을 통한 혈중 전립선암 특이 항원(PSA)검사, 초음파 조영검사를 통한 전립선 크기 측정,

그리고 문진, 처방 이렇게 진행됩니다.

검사를 마치는대로 결과를 알수 있게 해드릴겁니다.”

-요즘 보니까 전립선 질환자가 많이 늘어난것 같던데요.

“사실입니다. 55세 이상 남성의 80% 이상이 전립선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10%정도가 전립선암으로 의심돼 정밀검사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대한언론인회 1차 무료진료시 다섯분의 초기전립선 암환자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립선 질환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 식생활의 서구화와 잦은 육류

섭취를 들 수 있고요. 과도한 남성호르몬, 유전적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전립선 질환을 증가시키고 있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에 걸렸을 때는 어떤 치료를 해야 하나?

“우선 약물치료를 해야겠지요. 전립선 비대로 약물 등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심각해 당장 수술과 약물요법이 필요한 경우도 1%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뇨장애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폐가 된다고 감추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립선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좋은 음식은 토마토, 마늘, 콩, 수박, 굴, 가지, 녹차가 있고 특히 굴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로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 평소애 꾸준히 먹으면 비대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을 맞을 준비가 돼있습니다. 아버지 모시듯 하겠습니다. 마침 가정의 달, 효의 달이니겠습니까? 토요건강포럼에도 나오시고 저와 상담도 하시면 좋겠네요.” [4]

대답: 이보길 편집위원

발로 쓴 記事로 술한 逸話... 불의와 타협 안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34〉

회우초대석

朴文

인터뷰 김건이 (본회 회장)

“1960년 4월 18일 밤 11시. 서울 중부경찰서 출입 기자였던 나는 ‘4·19’ 하루 전날 밤 ‘4·18 고려대 데모 사건’의 전모를 취재하고 회사로 돌아가던 도중 총무로 파출소에 들렀다. 명동에 소재한 회사와 가까운 데다 평소 파출소장과는 친하게 지나는 사이여서 정보도 얻고 이야기도 나눌 겸 잠시 들어갔다. ‘박 기자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고 파출소장이 묻기에 ‘자유당 정권은 이제 끝났으니 소장도 보따리를 쌀 각오를 하라’며 농담조로 한마디 던졌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복차림의 경감이 느닷없이 권총을 뽑아들고 내게 총부리를 겨누었다.” ‘4·19 혁명’ 당시를 회고하는 노 기자의 눈동자가 번뜩인다.

권총 사나이가 “당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 따위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야! 누구한테 보따리를 싸라고 하는 거야!”

사뭇 흥분된 경감은 난데없이 수갑을 채우고는 백차를 불러 중부경찰서로 강제 연행하고는 사찰과장에게 인계했다. 기자를 연행한 경감은 이기봉 사저 후위 경찰관이었다. 그는 사찰과장에게 귀엣말을 하고는 나가버렸다. 정말 아이없는 일이었다. 기자가 출입하는 경찰서에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그날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녘에야 사찰과장이 웃는 얼굴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풀어주면서 전날 밤의 그 자가 오기 전에 아침식사를 하고 오라고 했다. 경찰서를 빠져 나온 기자는 경찰서에 다시 출두하지 않았다. 이승만 독재정권이 일선 취재기자를 유치장에 가둔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다.

사회부장 시절이었다. 1976년 6월 초 시청 출입기자 김찬호 차장(보건신문 대표이사 회장 역임)이 특종을 몰고 왔다. 부정식품 일체 단속에서 적발된 유명회사 부정식품 리스트를 입수한 것이다. 부정식품 단속회사 명단과 그 회사 식품을 하나도 빼지 않고 톱기사로 오전에 내보냈다. 당시 석간신문이었던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이 대서 특필했다. 다음 날 조간 한국일보 조선일보에도 크게 보도됐다.

모처럼 특종을 건진 사회부장으로서 매우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김찬호 차장을 비롯한 사회부 기자들과 기분 좋게 저녁 회식도 했다. 신문에 보도가 나간 다음 날 편집국이 발각 뒤집힐 만큼 소동이 벌어졌다. 오후 7시께 검은 지프가 통신사 건물 앞에 들이닥쳐 박문송 사회부장과 김찬호 차장을 남산으로 연행해 간 것이다.

사회부장은 남산에서 이틀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혹독한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취재지시와 기사작성, 보도 모두 사회부장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재기자를 풀어주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김찬호 차장은 부정식품 단속 리스트인 공문서를 절도했다는 혐의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1주일가량 당국과 실랑이 끝에 박문송 사회부장이 경찰서에 시달서를 써주고 취재기자는 가까스로 풀려났다.

문제의 발단은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때 문이었다. 그가 청와대를 방문해 “롯데 겸 이 부정식품이라면 대한민국에 부정식품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일본에서 번 돈으로 조국 부흥을 위해 국내에 롯데제과를 창업했는데 부정식품 회사로 몰리다니 너



60년대 기자시절을 회고하며 만개한 봄꽃앞에 포즈를 취한 박문송 회우.

올챙이 記者로 출발 사회부장 거쳐 편집국장 부지런한 天性... 요즘도 매주 토요일 아차산

무 어이가 없다. 조국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여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후문이다.

남곡(南谷) 박문송(84)의 언론 비화 중 한 토막이다.

그는 1957년 12월 1일 캐나다 Nara 통신, 일본 시사통신과 제휴했던 시사통신에 입사한 이후 24년 동안 언론에 몸담으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1980년대 언론통폐합으로 군소 통신과 신문이 문을 닫기까지 그의 기자생활은 가시밭길이었다. 돌이켜 보면 광복 이후 한국 언론사가 그러했듯이 언론인 박문송의 언론 역정도 누구 못지않은 고난의 길이었다. 6·25전쟁과 함께 고향인 함북 길주를 떠나면서 이산의 아픔과 분단의 고통, 망향의 설움을 수없이 겪었다. 언론에 몸담아 정론 직필의 외길을 걸어오면서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이어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을 온 몸으로 직접 체험했다.

일선 경찰서 출입을 비롯해 검찰, 내무부, 보건사회부, 농림부 등의 출입기자를 거쳐 데스크로 일하는 동안 정신적 고통도 많았지만 기사로 승부한 언론인으로서의 긍지와 보람도 적지 않았다. 농림부 출입

기자 시절이었던 1970년 5월 어느 날 조시형(趙始衡)장관과 기자회견이 있었다.

“대장균이 허용치 이상 함유된 우유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데, 그것은 식품회사의 위생관리 허술과 농림부의 단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며 대책이 무엇인가고 따져 물었다. 성질이 급했던 조 장관은 몹시 화난 표정으로 “대장균은 인체에 해롭지 않다. 박 기자 뱃속에도 수만 마리의 대장균이 있다. 낙농 진흥을 위해서는 우유에 허용치 이상의 대장균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강변을 한 것이다. “대장균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대장균이 인체에 정상적으로 기생할 때는 병원성 운동성이 없으나 대장 밖으로 나오면 병원성을 가지게 되어 복막염, 신장염, 방광염, 담낭염 등을 일으켜 인체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데, 대장균이 우글거리는 우유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장관님!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하고 보사부 출입 시절 익혔던 해박한 식품위생 지식으로 반격을 가했다.

노발대발한 조 장관이 기자들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기자회견

이 중단되고 말았다. 기자실로 돌아온 기자들이 조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으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일체 취재를 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조 장관! 대장균 먹어도 된다”라는 말까지도 신문에 크게 인용 보도되면서 농림부 직원들도 전전긍긍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며칠 후 조 장관이 기자실에 나타나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시사통신을 떠난 그는 보건신문 회장, 연예영화신문 고문을 거쳐 9년 동안 후지칼라 서울 현상소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언론계에 몸담고 있을 때는 늘 쫓돌리는 생활을 면치 못해 부인 김수남 여사(81)가 미용실을 운영해 살림에 보탬다. 경제생활은 후지칼라로 옮기면서 조금씩 나아졌다고 한다.

언론인으로서의 인생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올챙이 기자로 출발해서 사회부장을 거쳐 편집국장까지 올라갔으니 기자로서는 대망을 이룬 셈이다. 기자 시절 그는 대단히 부지런한 기자였다. 6·25전쟁을 겪으면서 주한유엔연합사령부와 해병대 사령부 등에 문관으로 근무하다 보니 언론사 출발은 늦어 만 30세부터였다. 그렇지만 천성이 부지런한 탓에 어느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나는 ‘정의의 사나이’

文松

- 전 시사통신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 전 후지칼라 대표이사
- 함북중앙도민회 부회장

우 · 전 세계일보 국장겸 수석 논설 위원

포커놀이를 하거나 바둑을 두는 동안, 그는 조금도 쉬지 않고 출입처 곳곳을 누비며 다녔다. 취재 수첩을 꼭 갖고 다니면서 메모하는 습관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특종도 적지 않게 했다. 통신사 기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취재한 기사가 종합지 신문에 보도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그런 사례는 부지기수였다. 그래서 동년배 언론인 김천수씨는 그를 항상 높게 평가했다. 신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유승택씨도 “그는 발로 쓰는 기자였다. 다른 기자들보

따뜻한 인간미가 배어 있어서 아단맞는 후배들이 큰 상처를 입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항상 약자 편에 섰다. 약자가 괴로움 당하는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패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와도 잘 융합하는 장기를 갖고 있다. 술·담배를 일체 하지 않으면서도 술좌석에 흔쾌히 어울리는가 하면 남에게 술도 자주 살줄 아는 친화력을 가진 사람으로 소문났다. 항상 깔끔한 차림이어서 멋쟁이로 기억하는 후배들도 많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경북도 길주농림학교 졸업 때까지 1년 선배로서, 그리고 언론인으로 활동한 마육 전 전우신문(현 국방일보) 편집장은 ‘인간 박문송’이 걸어온 길에 경외감을 감추지 못한다. 6·25동란의 와중에도 서울 수복과 함께 두 사람은 극적으로 다시 만나 지금까지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다.

1927년 9월 11일(음) 함경북도 길주군 영북면 유천리 826번지에서 중농 부부의 3남4녀 중 막내로 태어난 박문송은 소학교에 입학하기 전 만형으로부터 한학을 배워 천자문을 통달했다. 광복 직후인 길주농림학교 4학년 때 천도교 청우당에 입당해 길주군당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산주의에 저항하며 반공운동에 앞장섰다. 공산잔재를 없애지 않고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릴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투쟁했다. 그러나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터졌다. 1951년 함경도까지 북진한 국군의 1·4후퇴 작전으로 국군 3사단 18연대의 LST를 겨우 얻어 타고 동해 성진항을 출발해 경북 영일만 구룡포에 도착했다.

친구 셋이 함께 무작정 걸어서 부산으로 갔다. 끼니를 잇기 위해 부두노동일을 하다 지리산 공비토벌을 위한 군수품 운송 작전에 참여했다. 이어 동래에 본부를 둔 주한 유엔연합고문단사령부가 관장하는 거제도 앞바다 작은 섬에서 30명 규모의 부대를 지휘하는 경비대장을 맡았다. 규모는 작지만 북한으로 밀파하는 특수공작 유격대와 함께 파견되는 통신병(무전사) 양성부대였다. 언젠가는 유엔군과 국군이 북진할 때 함께 합류할 기회를 잡기 위해 경비대 근무를 지원한 것이다.

그 후 해병대사령부에서 문관으로 근무하던 중 1957년 8월 진보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해병대를 그만 두게 됐다. 조봉암의 참모로서 진보당 조직책을 맡았던 전세용과 친구라는 이유로 ‘진보당 비밀당원’으로 해병대에 진보당 조직을 만들려 했다는 누명을 씌운 것이다. 15일 동안 해군 헌병대에 구속되어 모진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에 앞서 1945년 6월에는 만주에서 독립투사로 활동했던 5촌 숙부가 조카 집에 잠시 들렀다. 만주로 돌아가다가 함북 종성군 삼삼봉 세관에서 ‘독립투사 규합’에 관한 지령 문건이 적발돼 모진 고문 끝에 지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72년 김보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다.

까지 승승장구 올라 건강과시

다 한 발 앞서 아침 일찍 기자실에 나타나기가 무섭게 장관실 동정을 시작으로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취재에 여념이 없었다. 간혹 전날 밤 술에 흠뻑 취해 작취미성의 상태로 소파에 누워 있다가 기사 마감 시간이 되면 박문송 기자를 찾느라 소란을 피우는 다른 언론사 기자도 있었다. 홀연히 기자실에 나타난 박 기자는 1단짜리에서부터 굵직굵직한 뉴스거리를 풀어주는 정보통이었다. 물론 특종감은 제외하고...”라고 회고한다.

동료기자들은 그에게서 늘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곤 했다. 동료 기자뿐 아니라 출입처 공무원들의 애경사에까지 으레 그의 얼굴이 보였다. 슬픈 일이거나 기쁜 일이거나 항상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이다. 그것은 그의 천성이었다. 물론 그는 소속된 회사 직원들의 애경사에도 가장 열성적으로 참가하는 분으로 정평이 났다.

그렇지만 전형적인 함경도 사나이답게 무뎌죽고 직선적이며, 타협하지 않는 성미다. ‘곧이곧대로’와 ‘부지런 함’ 정의의 사나이’가 그의 닉네임이다. 편집국장 시절, 기지와 담당 데스크에게는 강한 질책을 하기도 했지만, 아단을 치는 가운데도

生活斷想

개관사정이라 했다. 사람은 죽고 난 뒤에야 올바르게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람의 행위는 언젠가는 반드시 평가를 받는다는 뜻과 함께 사람을 선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사자성어다.

실체(또는 현상)·

규명·평가 그리고 기록을 주 임무로 삼는 언론인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역사다. 때 순간 순간 현장에서 작성한 기록이 역사로 점철되기 때문이다.

기자의 기록이 그릇되거나 뒤집혔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되면 결국 역사의 한 단면이 일그러진 형상으로 나타나는 물론 한 시대를 혼돈 속에 빠뜨리는 원흉이 되고 만다. 그리곤 자신들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거나 최소한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그래서 기자의 기록은 공명정대하고 엄정해야 한다. 특히 사람을 평가할 때는 더욱 그렇다. 우리는 신문에서 흔히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읽는다. 주로 정관계의 고위직, 재계 문화체육계의 요직을 맡게 된 사람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난이다. 그런데 천편일률이다. 이 세상에 똑같은 품성과 똑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이 흔치 않을 터인데 프로파일의 내용은 항상 대동소이한 표현이다.

‘한 마디로 외유내강 형. 아랫사람에게 항상 부드러우면서도 일을 추진할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독서가 취미이고 두주불사. 부인과 1남2녀가 있다’는 식이다. 외유내강은 리더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고 일의 추진력은 진취의 기본조건이다.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독서를 취미로 삼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인데 말이다.

조금 빗나간 얘기를 하자면 요즘 서점가에는 ‘자서전’과 ‘회고록’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살아온 발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남이 평가하기에 앞서 스스로 평가해 보

蓋棺事定



최병요

- 본회 논설위원
-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겠다는 용기가 가상하다 하겠다. 더러는 진솔한 고백을 통해 반성과 참회를 하고 감춰진 뒷얘기(behind story)를 밝혀 세간의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주는 등 읽어볼만한 책으로 평가받지만 또한 상당수는 자기 미미화와 변명, 미운 사람 깎아내리기, 자기 잘못 덮어씌우기 등으로 일관해 측은하다는 뒷소리를 듣는다. 아예 자서전을 아니 뎀만 못한 경우를 흔히 접한다.

누구나 장점 없는 사람이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다. 즉 공(功)이 많은 사람도 반드시 한 두 가지 과(過)는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도 한 두 가지씩은 있게 마련이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다. 기록자가 애써 단점이나 과를 헤집어 누를 덧입힐 필요는 없겠으나 꼭 짚어내야 할 부분을 피해가서도 아니 된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가 누천년 동안 고전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그의 객관적이고도 솔직한 기술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공자에 대해서조차 ‘아비의 묘소도 모르는 불효자’라고 기록할 만큼 담대했다.

대한언론인회가 자유언론을 위해 한 평생을 보낸 사거 언론인들의 출중한 발자취를 더듬어 출간한 ‘韓國言論人物史話’가 세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벌써 7권을 펴냈고 8권을 준비 중이다. 우연히 언론사에 들어갔다가 꽤 높은 직위를 거쳤다는 명목 하나로 평소 친밀했던 사람의 미사여구를 동원한 과대평가만 기술하는 일은 피했으면 싶다. 화려한 업적도 중요하지만 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겪어왔던 그의 고뇌와 몸부림도 비취춤으로써 발간사업의 취지가 더욱 돋보였으면 한다. 그것은 고인을 욕되게 하기보다 오히려 선배에 대한 외경심을 키우는 요소가 될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언젠가 후배들의 개관사정 대상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두렵기만 하다.㉞

령문건이 조카 박문송에게서 나왔다고 자백했다. 그 문건의 내용조차 몰랐던 소년 박문송은 필적 감정과 지인의 도움으로 1주일 동안 헌병대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한 달 동안 유치장 신세를 졌다면 분의는 아니지만 독립유공자로 등재됐을지도 모른다. 그 당시 독립투사들이 물고문과 고춧가루 고문을 받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애국하는 정신과 저항정신이 자신의 혈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됐다.

그는 1996년 9월 파란만장한 삶의 흔적과 신문·잡지 등에 투고했던 글을 모아 고회 기념문집 ‘가슴에 묻어둔 내 고향 산하’를 책으로 펴냈다. 그동안 길주군 군민회장, 함북중앙도민회 감사와 부회장, 평화통일 자문위원, 성동구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나라 발전과 사회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사부, 농림부, 국방부,

내무부 장관상, 중앙선관위원장상, 대통령 표창,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다.

같은 시기에 함께 언론에 몸담았던 원로 언론인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고 세상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친목을 다진다. 매월 9일에 만나는 九日會 모임이다. 계성일, 공대식, 곽찬호, 김귀제, 김운덕, 박문송, 박영식, 박진서, 유승택, 한영섭 등 모두 대한언론인회 회우들이다. 지난 5년 동안 서승벽, 이귀암, 정문식 등 세 멤버가 세상을 떠났다.

산악애호가로 주말마다 전국의 산을 누빈 탓으로 동년배들에 비해 매우 건강한 편이다. 요즘도 하루 한 시간가량 산책을 하며 고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한 인연으로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아차산을 오르는 고려대 광진구산악회 모임에도 빠지지 않는다. 슬하에 2남 2녀와 손자 손녀를 두어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㉞

www.kpf.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언론은 희망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신문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앞서가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새 희망-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산업의 미래를 위해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이 통합된 새로운 기구입니다

회우들이 펴낸 新刊

박정진 회우 ‘박정희의 실상...’

박정진 회우(본보 편집위원·시인·인류학)가 운동권과 좌파사상의 대부(代父)로 알려진 이영희(李泳禧)와 박정희(朴正熙)를 대척점에서 비교한 ‘박정희의 실상, 이영희의 허상’(이답북스)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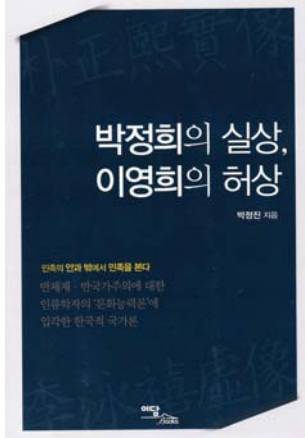
이 책은 이영희의 사상이 박정희의 사

상과 업적에 비해 얼마나 ‘사대주의와 허구에 가득 찬 허상’이라는 것을 저자 특유의 문화인류학적 시각, 문화능력론의 시각에서 회고하고 비판한 본격적인 학술서이다.

“선진 제국들은 지금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과거로, 과거로, 그것도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미명으로 과거에 대한 한풀이와 과거의 질곡 속으로 다시 후진하고 있으니, 이것은 ‘역사 거꾸로 가기’이다. 민족의 지혜와 지성이 이렇듯 박정희 대통령 치세의 근대화과 산업화의 성공, 즉 ‘한강의 기적’으로 닦아 놓은 국가기반만으로 미래를 낙관할 수만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좌파의 대부인 이영희는 전형적인 모택동주의자, 마오이스트(Maoist)로 만약 그의 주장대로 한국이 나아갔다면 한국은 가난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정희는 한국사에서는 ‘독재자나, 민족의 구원자나’라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당



대에 가장 빛나는 인물이었다고 평가한다. 체질화된 사대주의, 저항적 정의에 길들여진 한국인은 아직도 그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볼 위치에 있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저자는 이번에 ‘새마을운동’을 ‘활생(活生)의 철학’이라는 존재론적 철학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최초의 논문도 후반부에 실고 있어 그의 치세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정면에서 불붙게 하고 있다.

저자는 민주운동권과 좌파세력에 의해 야기된 치명적 결과인 IMF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과 한국 국민의 민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치욕이었으며, 지금도 그 어둠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은 처음부터 불세출의 영웅인 박정희 대통령을 변론하고 정당화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이영희라는 좌파의 대부가 그의 일생을 정리하는 ‘전집’을 내면서 쓴 내용들이 결국 모두 박정희를 공격하고 매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에 분격하여 필을 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이 책의 내용들은 이영희가 자신의 업적을 영웅시하기 위해서 글의 곳곳에서 마치 검사가 논고하는 방식으로 박정희를 비난하고 추궁하고 매도하면서 그의 일생을 미화하는 것을 참다못한 저자가 자연스럽게 박정희를 변호하는 형식으로 쓴 글이다.

안평선 회우 ‘大王 광고에 팔리다’

안평선 회우(전 KBS 춘천방송총국장·한국방송인회 상임 부회장)가 2004년 5월 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KBS TV 프로그램을 모니터 한 ‘大王 광고에 팔리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2004년 5월부터 4년 7개월 동안 KBS TV에서 방송된 다큐멘터리를 비롯하여 연예, 오락 등 각종 프로그램을 30여년 방송 종사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히 분석 평가한 체험적 리포트다. 총 225페이지로 구성된 이 책은 독자들의 TV시청 안목을 업그레이드 시켜 준다.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2005년 6월에 방송된 ‘이순신 장군 탄생 460주년 기념 특별기획 2부작 이순신, 제1편: 23전 23승 불패의 조건, 제2편 일본의 기억 적장 이순신’은 여러가지 면에서 새로운 접근과 사료 발굴로 시청자의 욕구에 부응했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특히 이 기획에서 일본은 임진란이 패전의 역사이지만 일본의 문헌 자료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일본 교과서에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와 함께 게재되어 있는 사실을 이 다큐에서 처음으로 영상을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알려준 것을 높게 평가한다.

또 광복 60주년 특별기획 ‘110년 추적 명성황후 시해사건, 제1편: 그들은 낭인이었다, 제2편 사죄 그리고



진실’에서 저자는 110년 만에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가담했던 가해자의 두 세대가 명성황후의 능 앞에서 회개하고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장면에 의미를 부여 하고 있다.

TV 아침 드라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 정서가 메달라 있다고 평가한다. 아침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야기와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채널이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비정상적인 가족 구성, 무리한 사건 전개, 욕설과 폭력, 극심한 갈등과 작위적인 총동 등 사회의 일부 부조리한 면이 전체인양 도덕과 윤리는 내팽개친 채 ‘막장’까지 가는 드라마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공익을 가장 우선한다고 떠벌리던 정연주 사장 시절 1TV 대하 드라마 ‘대종 세종’이 2TV 밤 9시 5분으로 옮기면서 광고를 붙이고 1TV 9시 뉴스와 경쟁을 붙인데 대해 저자는 사장을 비롯한 편성 책임자들에게 이 대하드라마를 시급히 원상 회복시키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통렬히 지적한다. TV 간판인 대하드라마를, 우리 역사상 가장 성군인 세종대왕을, 어떻게 광고판에 내놓을 생각을 했는지 가슴 아파하면서 이 책의 제목도 ‘大王 광고에 팔리다’로 정하여 공영방송의 원칙에 위배된 편성을 한 당사자들을 경고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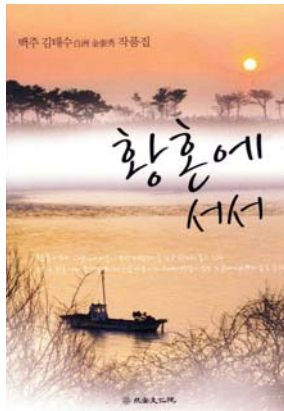
화제의 책

아들이 펴낸 아버지作品集 백주 김태수 ‘황혼에 서서’

김석성 회우(전 중앙일보출판국장·현 부안여중이사장)의 선친 백주(白洲) 김태수(金泰秀·1904~1982)선생은 운수금융사업으로 돈벌어 여자중학교를 설립, 육영사업을 벌인 전북부안의 대표적 어르신이다. 그런 이가 20대 초반 3년 사이에 썼던 소설 희곡 동화 시 평론 등 30여 편이 ‘황혼에 서서’(부안문화원)란 제목으로 묶여 출간됐다. 놀라운 것은 백주가 쓴 글이 문학청년기의 습작이 아니라는 점이다. 백주는 21세 때인 1924년 9월 동아일보에 ‘처녀시대’란 단편을 게재하고 그해 11월 조선문단에 ‘과부’로 추천 이광수의 추천을 받아 정식 등단했다. 추천은 선후감에서 “백주군의 과부는 여자의 심리를 그린 것으로 우리문단에 드문 작품이다. 전편을 통하여 천재적 솜씨가 보인다. 실로 아름다운 작품이다”고 썼다. 실제 그의 소설을 읽고 있으면 덜 다듬어져 거친듯하면서도 기성작가들과는 달리 당시 사회상을 생생하고 쫓쫓하게 표현하고 있어

문득 자신이 그 시대 속에 빠져 들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백주가 왜 문학의 길을 버리고 낙향, 사업에 전념해야 했는지 몇 가지 행적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할아버지의 별세 등 가정문제도 있었겠지만 20대의 열혈청년이자 문학인 백주에게 일제치하는 넘어야 할 벽이었다. 1924년 12월호 영대(靈臺)목차는 김동인의 소설 ‘유서’ 소설의 시 명주팔기 사이에 백주의 소설이 실렸음을 알렸으나 제목이 복자(伏字)로 뭉개져 있고 본문도 ‘전부삭제’된 채 바로 뒤이어 소설의 시와 춘원의 산문 ‘인생의 향기’가 실려 있다. 이 잡지에는 그 외에도 김안서, 김억의 이름으로 된 세 작품 등 여러 문화인의 작품들이 실려 있으나 삭제된 것은 백주의



작품이 유일하다. 1925년 11월호 신민(新民)에도 목차에 ‘寒夜(小説) 白洲..128’이 나와 있으나 실제 제목과 글머리 몇 줄이 실린 128면 한 페이지지만 남고 본문 21페이지 분량이 삭제됐다. 문학평론가 오하근에 의하면 일제 검열의 포악한 칼날에 전문이 말살된 소설은 백주의 이 두 편과 이기영의 ‘농부 정도령’ 2회분(개벽 1926년 2월호)정도다.

부안 출신으로 60년대 말 동아일보 기자였던 김진배 회우(전 국회의원)는 창간직후의 동아일보기사 색인 작업을 하던 중 백주가 동아일보 부안지국장을 했으며 독립운동을 하다 치안유지법위법으로 실형을 받은 사실, 소설과 시 외에도 학예란에 ‘탈향기’, ‘해는간다’, ‘추야장’ 등 가슴속 무거운 불덩어리를 쏟아내는 산문들을 실었다는 사

실을 발견했다. 친구의 아버님이요 여학교 이사장인 고향의 멘토 ‘백주선생’님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한 그는 고향을 찾았을 때 자랑삼아 관련 색인카드를 보여드렸다. 그런데 선생은 뜻밖에 냉담했다고 한다. “그때는 열중했지만 지금 그게 뭐 대단하냐”면서, 백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신을 불태워 만든 작품이 몽땅 없어졌을 때 많은 선배문인들과 달리 그는 차라리 붓을 꺾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아쉽다. 그 때 백주가 절필한 것도 제목조차 모르는 소설(伏字)과 ‘한야’에 담긴 1920년대 암울함을 읽을 수 없다는 것도.

‘황혼에 서서’는 그나마 위안이다. 비록 백조, 개벽의 낭만과 매끄러움이 없고 신경향파, 카프의 이념과 목적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이 책 속 13편의 소설과 2편의 희곡은 1920년대 우리사회를 유리판에 인화된 흑백사진처럼 다소 생경하게 담고 있다.

김해도 본회 편집 고문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기업

한국남동발전은 청정 에너지 개발과 환경보전 노력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기술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녹색성장의 놀라운 가치를 선보인 한국남동발전
이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 녹색성장의 힘을 전파합니다.

미래 환경을 선도하는 글로벌 파워리더- 한국남동발전

溫故知新

王朝史의 국외자 金時習



황 원 갑

· 본회 회우
· 전 서울경제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을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만 아는 이가 많지만, 사실 그는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 본 적이 없었으니 '신(臣)'은 아니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현실의 질곡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친 국외자였으나,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를 비롯, 2천여 수의 시와 150편에 이르는 논·전·기 등을 남긴 탁월한 문학가였다. 뿐만 아니라 59년의 파란만장한 일생 가운데 38년의 승려 생활을 포함하여 불·유·선에도 두루두루 통달한 비상한 천재였다.

필자가 일찍이 조선왕조의 3대 천재를 꼽아본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매월당이 으뜸이다. 조선왕조 첫째가는 천재로 과거에 아홉 차례 장원급제한 울곡(栗谷) 이이(李耳)를 꼽는 사람도 많지만, 비록 과거는 단 한 차례 보지 않고 벼슬살이도 한 적이 없으나 매월당은 천재 중의 천재였다. 그는 3세에 이미 시를 지었고, 5세에는 '대학', '중용'을 통달하여 대궐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안에 '신동 김 오세'란 별명을 떨친 비상한 천재였다. 나머지 한 사람은 '홍길동전'의 작가 고산(蛟山) 허균(許筠)이다.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의 무량사 부도전에는 매월당의 사리탑이 있다. 이는 무량사가 매월당이 파란만장하고 중첩했던 한 삶을 마친 역사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무량사 극락보전 뒤편 산 기슭에는 매월당이 이승살이의 막을 내린 승방 자리였던 산신각이 있다.

매월당은 세종 때 태어나 불과 5세 어린 나이에 신동으로 이름을 떨쳐 시운만 따랐으면 관직에서나 학문에서나 길이 빛날 업적을 남길 수도 있었으련만 모진 운명은 그로 하여금 시대의 뒤안길을 돌아가게 만들었다.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내쫓고 임금 자리를 빼앗자 김시습은 분노와 슬픔에 겨워 속세의 명리를 여의고 저자와 산수 간을 정처 없이 넘나들었다. 그는 기인·광인·결승(乞僧) 소리를 들으며 왕조사의 뒤안길을 국외자·방관자가 되어 술 마시고 시 읊으며 통렬한 풍자로 행운유수처럼 살아 넘겼다.

김시습은 태어난 지 여덟 달 만에

말 뜻을 알았고, 세 살 때 제법 말을 하기 시작하므로 외조부가 시 짓는 법을 가르치자 이처럼 훌륭한 시를 지어 주위를 놀라게 했다.

桃紅柳綠三月慕(복사꽃 붉고 버들잎 푸르러 3월은 저물어가누나.)

珠貫青針松葉露(푸른 바늘에 꿰인 구슬은 솔잎에 맺힌 이슬이라네.)

또 다섯 살 때에는 이 웃에 시는 흥문관 수찬 이제전으로부터 '중용'과 '대학'을 익혔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빼어난 재주를 보이자 사람들마다 신동이 나왔다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하루는 영의정 허조가 소문을 듣고 찾아와 시습의 재주를 시험해보았다. "얘야, 나는 늙었으니 늙을 '노' 자를 넣어 글을 지어 보려므나." 시습이 이내 귀엽게 입술을 쭈긋거리며 이렇게 읊었다. "老木開花心不老(고목에도 꽃이 피니 마음은 늙지 않았지요)" 허 정승은 무릎을 철썩 치며 감탄했다. "어허, 과연 듣던 대로 신동이로고!"

이런 소문이 마침내 대궐 안까지 들어갔다. 세종대왕이 비서실장격인 지신사 박이창에게 그 아이가 정말로 그렇게 신통한지 한번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박이창이 김시습을 불러 무릎에 앉히고는 "얘야, 너 생각나는 대로 글귀를 하나 불러보아라. 어디 들어보자꾸나" 했다. 시습이 입을 열어 대꾸하기를 "來時襁褓金時習(이 세상에 올 적엔 강보에 싸인 김시습)"이라고 했다. 박이창이 다시 벽에 걸린 산수화를 가리키며 저 그림을 보고 시를 지어보라고 하자, 또한 서슴없이 "小亭庋宅何人在(작은 정자 배 있는 집 누가 살지

요?)" 하였다.

보고를 받고 감탄한 세종대왕이 잘 가르치고 가르쳐 학업을 쌓으면 크게 쓰리라면서 상으로 비단 50필을 내렸다. 그리고 어찌는가 보려고 제 힘으로 가져가라 했더니 비단을 몽땅 풀어 헤쳐서 끝과 끝을 마주 잇고 허리에 감은 채 질질 끌고 나가더라는 것이다. 김시습

은 그렇게 해서 '신동 김 오세'라는 별명으로 나라 안에 이름을 널리 떨치게 되었던 것이다.

1452년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이 재위 불과 2년 만에 병사하고 겨우 12세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다. 이듬해 10월 아십만만하던 수양대군이 마침내 쿠데타를 일으켜 충신들을 마구 숙청하고 정권을 움켜쥐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른바 계유정난(癸酉靖難)이다. 당시 19세의 김시습은 난세를 개탄하고 현실에 환멸을 느껴 삼각산 중흥사로 들어가 불서를 읽고 참선하며 공허한 심사를 달랬다. 그렇게 이태가 흘렀는데 수양대군이 드디어 단종을 쫓아내고 임금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말을 들은 김시습은 사흘 동안 문을 닫아걸고 대성통곡하더니 읽던 책을 모두 불태우고 미친 듯이 날뛰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머리를 깎고 설잠(雪岑)이란 법명으로 행각승이 되어 정처 없는 방랑길에 나섰는데 수염만은 깎지 않았다고 한다. 그해가 1455년, 21세 때였다.

그 이듬해에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자 김시습은 노들강변에서 능지처참당한 성삼문·박팽년·이개·성승·유응

부 다섯 충신의 머리를 훔쳐 강 건너 노량진 기슭에 몰래 파묻었다고 전한다. 그는 1457년(세조 3년) 23세부터 1463년 29세 때까지 관서·관동·호서·호남 일대를 살살이 누볐는데, 이따금 병이 들어 산사에 드러눕기도 했지만 병약한 몸비해 정열적으로 이땅의 산줄기와 물굽이를 떠돌아다녔다. 그가 경주 남산 용장사 터에 매월당이란 산실(山室)을 짓고 은거에 들어간 것은 1465년(세조 10년) 31세 때였다.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는 금오산 기슭에 초막을 짓고 매화와 대를 가꾸며 은거하던 금오산실-매월당에서 집필한 다섯 편의 작품집이다. 뒷날 영조가 매월당 터에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지금은 그 사당은 물론이요 용장사도 매월당도 폐허로 변해 흔적도 찾을 길 없다.

매월당이 6년간의 은둔 끝에 금오산에서 나온 것은 1471년 37세 때였다. 그동안 세상은 세조가 겨우 13년간 왕노릇을 하다가 몸쓸 병이 들어 죽고 예종을 거쳐 성종 시대로 접어들어 있었다. 세상은 둥근 구멍, 모난 막대기 같은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 어울리려면 모난 성품을 깎고 다듬어 타협을 해야 하는데 김시습은 모난 막대기 생긴 그대로 세속 밖을 굴러다녔다. 이리저리 떠돌던 김시습은 설악산에 오세암을 짓고 산채와 약초를 캐며 연명하다가 다시 늙고 병든 발길을 옮겼다.

그가 호서지방을 배회하다가 부여군 외산면 만수산 기슭 무량사 승방에 쓰러진 것은 1491년(성종 22년) 늦봄이었다. 그리고 2년 뒤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파란 많은 일생을 마치니 59세였다. 무량사의 중들이 유언에 따라 화장하지 않고 절 옆에 매장했다가 3년 뒤 관을 열어 보았는데 그의 안색이 생시와 다름없었다고 한다. 중들이 모두 놀라 성불(成佛)했다면서 대비하고 부도를 만들어 세웠다.

요즘 세상에도 권세에 빌붙어 지조를 파는 자들, 공리공명(空利空名)의 미망(迷妄)에 사로잡혀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자들이 많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

토요건강포럼 웃음 만발

5월14일 '노후 스트레스 극복' 강의



4월 건강포럼에서 임춘희씨가 강의를 하고 있다.

신록의 계절 5월의 토요건강포럼이 오는 14일 열린다.

연사는 한나로의료재단 건강증진센터 오혜영 진료원장(전 연세세브란스 건강증진센터 소장)으로 '노후 스트레스 극복과 성인병 예방'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오 박사는 이 강연에서 산업화, 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인병이 급격하게 늘었는데 이는 생활환경의 변화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운동부족, 영양과잉,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 이 네가지가 가장 큰 적이며 특히 스트레스는 노후 건강에 치명적인 것이라고 밝힌다.

특히 이번 건강포럼에서 오 박사는 노후에 찾아오는 심한 스트레스를 극



5월 건강포럼 강사 오혜영 박사.

복할 여러 방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6일 열린 '토요건강포럼'은 즐거움이 가득한 모임이었다.

대한연론인회 건강포럼 시작 이후 회우들이 이렇게 어깨를 으쓱이고 손뼉을 치며 큰소리로 한껏 웃으며 즐긴 포럼은 없었다. 평소보다 적게 참석했지만 열성적인 여강사의 강의와 율동에 모두 빠져들어 강의시간 내내 즐거움이 넘쳤다. 이날 강사는 한국심성교육개발원의 임춘희 심리치료사로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실천법'을 강의와 실기로 진행했다. 실기 때는 작년에 건강포럼에 나왔던 서경순 씨가 함께 나와 회우들과 함께 손뼉을 치며 흥을 돋우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강의를 끝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뒤풀이가 이어졌는데 오전식 회우가 "오랜만에 참석했는데 오늘 강의를 너무 즐거웠다"며 푸짐하게 맥주와 통닭으로 한턱냈다. ㉠

이보길 건강포럼담당 편집위원

雪山 붉게 물들인 日出 장관 “황홀”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트레킹이 인기다. 만년설 덮인 설산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장엄한 풍광을 가까이서 바라보는 것만도 가슴 벅차다. 네팔은 에베레스트(8,848m)를 비롯해 8,000m 이상의 이른바 14좌 중 8개 봉우리를 품고 있어 전문 산악인은 물론 세계의 트레커들이 몰려든다. 우리나라도 네팔전문여행사가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히말라야 트레킹의 전초기지는 네팔의 휴양도시 포카라. 만년설이 흘러내린 페와(Fewa)호수도 아름답지만, 도심에서도 신비스러운 설산이 시야에 들어온다. 네팔어로 ‘포카라’는 호수라는 뜻.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는 50여 곳 모두 포카라에서 시작한다. 트레킹 코스도 짧게는 1일부터 20일까지 다양하다.

인간의 발길 닿지 않은 마차푸차레

포카라 트레킹코스 가운데 사랑코트(Sarangkot · 1,592m)전망대는 일정이 짧아 트레킹 할 여정이 충분하지 않은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당일치기나 2박3일 짧은 트레킹을 하기에 적당하다. 포카라에 여장을 푼 지난 3월 6일 새벽 4시, 어둠을 헤치고 꼬불꼬불한 낭떠러지 비탈길을 1,300m 지점까지 차로 올랐다. 그 곳에서 전망대까지는 가파른 계단 길이라 녹록치 않다. 40여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전망대에 오르니 수많은 인파로 붐빈다. 주름치마처럼 흘러내린 히말라야 연봉 사이로 해가 솟는다. 눈부시게 황홀하다. “와~” 탄성과 함께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곳곳에서 터진다. 하얀 이마를 드러낸 설산이 서서히 홍조를 머금는다.

하늘을 향해 솟은 안나푸르나 남봉

히말라야 트레킹 가이드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 · 칼럼니스트)



설산 앞에 선 필자.

(7,219m)과 안나푸르나 2봉(7,397m), 마차푸차레(6,993m)의 장관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1년에 40여일 밖에 투명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영봉이다. 가이드는 “산이 품을 열어야 오를 수 있고 산이 허락해야 볼 수 있다”며 행운이라고 말한다.

‘물고기 꼬리(Fish Tail)’란 별명이 붙은 정삼각형 모양의 마차푸차레는 사랑코트전망대에서 직선 거리로 26km. 네팔 사람들은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보다 더 신성하게 여긴다. 힌두교도들에게 가장 추앙 받는 쉬바신과 부인 파르바티가 살았다는 곳으로 네팔 정부가 아직까지 등반허가를 내주지 않은 미답봉이다.

‘곡식이 가득 찬 곳’이라는 풍요의 의

미가 담긴 안나푸르나 주봉(8,091m)은 우리에게도 낯익다. 국내 여성산악인으로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했던 지현옥은 1999년 안나푸르나에서 추락하여 목숨을 잃었다. 히말라야 14좌 등정 대기록을 세운 엄홍길도 5차례 도전 끝에 등정한 봉우리다. 2010년에는 오은선이 올랐다. 세계를 떠돌던 여행자들이 왜 마지막 코스로 히말라야를 꿈꾸는지 짐작이 간다.

페와호에 비친 그림 같은 안나푸르나

여명의 붉은 잔해가 꽃가루처럼 뿌려진 길을 되짚어 내려온다. 트레킹 길목에는 고산족들의 허름한 주택과 카펫을 만드는 초라한 가게, 소형 목각품을 만들어 파는 상점도 있다. 오래 전 모기떼의 극성으로 말라리아가 창궐하자 평야

지대를 벗어나 히말라야 품에 기대어 산다. 발 아래로 페와호수와 물길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페와호에 비친 안나푸르나는 히말라야 관광 염서와 팜플렛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명소다.

포카라에서 시작하는 대표적인 트레킹코스는 안나푸르나 등반대의 전진 베이스캠프인 ABC(Annapurna Base Camp)와 안나푸르나 산군 주변을 일주하는 안나푸르나 라운드 트레킹 코스. 전문 산악인들이 정상을 등정 준비하는 베이스캠프는 해발 4,130m. 포카라에서 출발하여 베이스캠프가 있는 곳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코스로 6일에서 8일 가량 걸린다.

안나푸르나 라운드 코스는 안나푸르나봉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이나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돈다. 중간에 해발 5,146m의 소룡라를 거쳐야 하며 코스에 따라 10일에서 20일까지 소요된다. 2박3일 일정으로는 포카라 → 답푸스나 포카라 → 고레빠나 → 푼힐 전망대 트레킹 코스를 선호한다.

사랑코트전망대 트레킹을 제외하고는 트레킹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포카라의 댐사이드 입구에 위치한 ‘안나푸르나 자연보존계획협회’ ACAP(Annapurna Conservation Area Project)에서 입산 허가를 발급해준다. 여권과 사진 2장, 2000 네팔루피(약 2만7000천원)가 필요하다. 트레킹 시작 지점과 코스 중간 중간에 위치한 체크 포인트에서 입산 허가를 검사한다. 포카라 곳곳에 있는 트레킹 용품점에서 등산화, 침낭, 윈드 재킷 등 기본적인 용품을 대여해준다. 가격에 따라 외국계 유명 제품 등 선택의 폭이 넓다. 47

아내와 함께한 南道기행

김휴선 (본회 회우 · 전 MBC 보도국 부국장)



광양 매화마을에서의 필자 부부.

장 한가운데는 음식점들이 즐비하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제일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이 역시 순대국에 소머리 국밥집. 순대국물에 막걸리 잔으로 피로를 달래는 시골 농부들의 한가로운 모습이 눈에 띈다. 소머리를 삶아서 만든 ‘장터국밥’집이 제일 인기가 있어 앓을 지리가 없다. 모두 웅기종기 둘러앉아 오늘 물건을 “잘 팔았니, 못 팔았니” 덕담을 나누면서 막걸리와 소주로 목을 축인다. 시장을 구경하는 데는 한 시간쯤 걸렸을까? 날이 어두워진다. 시장은 파장이다.

다음날 오전 7시, 일찍 서둘러 아침을 먹고 옥곡면을 지나 ‘하동 삼진교’를 끼고 매화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벌써부터 매화마을 입구는 전국에서 찾아든 차량들로 만원이다. 마치 매화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운 좋게 차 한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었다. 아침인데도 벌써 매화마을은 사람들로 크게 붐빈다. 처남댁과 처남 그리고 우리 내외를 합쳐 일행은 모두 네 사람이다. ‘청매실농원’ 언덕배기를 오르자 섬진강이 한눈으

로 내려다보이고 그 뒤로 끊임없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한참을 오르니 정겨운 초가집이 눈에 띈다. 임권택 감독이 ‘천연학’을 찍었다는 영화촬영장소라고 한다.

사람들을 따라가다 산 아래를 내려다본다. 섬진강의 구불구불한 물줄기가 눈을 띄우며 시원스레 맞닿는다. 매화농원은 하얀 눈꽃이라도 내린 듯, 한 폭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이 아름답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추억을 담으며 웃음꽃을 피웠는지도 모르겠다. 매화를 쫓아 산책로를 따라 사람들의 뒤꽂무니

를 밟으며 올라갔더니 아낙네들이 야시장을 벌여 놓고 시골 특유의 장사를 한다. 비로 옆에는 매실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도 먹어볼 수도 있는 공간이 있다.

매화마을 전망대에서 앞을 바라보니 3천개의 장독대가 좌악 펼쳐진 모습은 절로 입이 벌어진다. 저 안에 담긴 게 모두 매실이라니! 가는 날이 주마이라 상공에는 휴일 스케치를 하는 방송국의 헬리콥터가 요란한 굉음을 내며 순회를 한다. KBS 비행기다. 산책로 아래에서는 시골 벽적인 각설이 타령이 온 동네를 떠나갈 듯이 상춘객을 독려하고 있었다. 먹을거리도 다양하게 들어서 있었고 골목 어디서건 광양 매화마을의 특산물과 봄나물을 구입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매화나무 묘목을 보물마냥 껴안고 배시시 웃는 모습은 즐거워들 보였다. 펜스레 간식 거리에 손이가 아이마냥 찐 옥수수과 군밤을 들고 서성이었으니 분위기에 휩쓸리는 건 어쩔 수 없었나 보다. 청매실농원은 ‘취하선’의 촬영장소로도 유명하다. 굵은 왕대나무가 숲을 이뤄, 농원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다. 답양에 가거나 볼 수 있으리라 여겼던 대나무 우거진 길이 어찌나 색다른지 걷는 맛을 더해준다.

매화마을은 도로나 강가에서 바라보는 경치도 아름답지만 산 중턱에 올라 섬진강 수면에 반사된 햇빛을 받아 더 아름답다.

19면으로 이어집니다.

만년설 森林-호수-氷河에 취하다

지난4월5일 오전8시30분 일행 32명과 밴쿠버를 출발, 3박4일간의 록키산맥 관광에 나섰다. 총거리 2,200km 연간 400만명이 다녀간다는 록키산맥은 세계5대 산맥중 하나. 무려 12만2천봉에 최고봉 높이는 3,953m이다.

엘버타주와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 걸쳐있는 캐나다언록키 산악지대는 캐나다 제일의 관광지로 알려져있으며 그 아름다움은 스위스를 능가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만년설에 덮인 웅대한 산, 넓은 호수, 빙하, 온천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이곳에는 밴프, 요호 재스퍼 등 7개의 국립공원이있다.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눈 쌓인 웅대한 설산이 끝없이 이어지고 좌우 산맥아래 울창한 숲이 펼쳐져 나갔다. 2시간 넘게 달린 후 캐나다 원주민마을 '호프'에 도착, 된장찌개로 이른 점심을 먹었다. 이어 해발1,120m의 코기할라 하이웨이를 달려 오후5시15분 인구 9만8천의 레벨스톡마을에 도착 1박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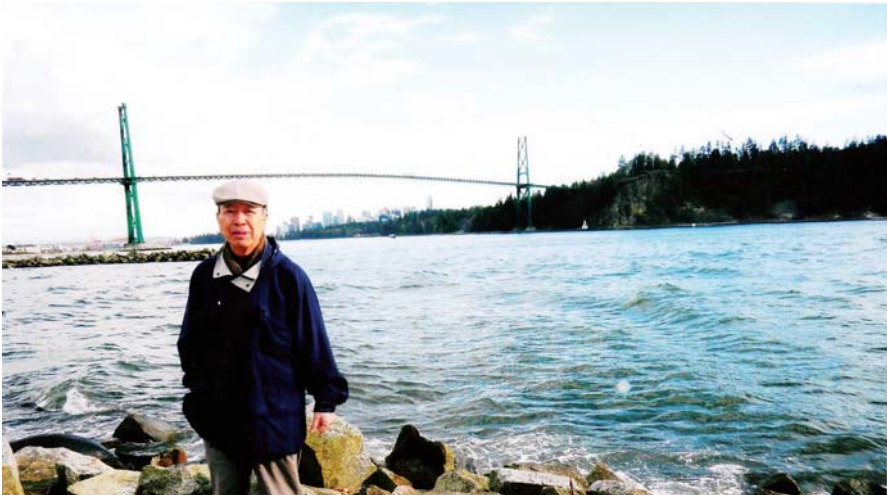
이 산중마을에 까지 기러기 엄마 촌이 생겨 한국의 어학연수생 등이 살고있다고 가이드가 설명했다. 다음날은 세계 10대 절경 중 하나인 루이스 호수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이크루이스 호텔에 들러 라운지에서 커피도 마셨다. 주변 관광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1시간의 취침시간을 주었으나, 바깥경관을 보느라 눈이 감기질 않았다. 달려도 달려도 끝없이 늘어선 수백년 묵은 경제림, 그 아래쪽 도로변에는 5~10년생 어린 전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자라고 있었다. 대를 이어 캐나다의 풍요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자연의 축복 이었다. 캐나다국민이 100년을 놓고 먹을 수 있는 경제효과가 있다'는 말이 실감났다. 참으로 부러웠다. 한참을 달려 2002년 6월 세계 G8정상회담이 개최되었던 장소이자 4계절 휴양지인 캐나나스키로 이동하여 Hotel: Delta Lodge at Karamaski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한참을 달려 록키의 정상전경을 볼 수 있다는 곤돌라 타는 곳으로 갔다. 해발2,000m가 넘어 보이는 급경사로 된 곤돌라, 정상 쪽으로 500m정도로 타고 올라갈 자신이 없었다. 아침에 겨우 회복이 된 고산증 때문이었다.

세쉴날, 캐나다 첫 국립공원의 중심지 밴프로 이동, 시내 관광을 하고 100여년 전통의 밴프스프링스호텔과 1945년 영

캐나다 록키산맥 여행기

김한길 (본회 회우·전 경상매일 상무·뉴스매거진 논설주관)



북 밴쿠버로 통하는 라이온스 게이트 다리. 그 아래 해안통에 선 필자

화 '돌아오지 않는 강' 촬영지인 보우폭포와 보우강 주변을 돌아보았다. 마틸린 먼로는 이 영화에서 뗏목을 타고 노를 저으며 내려가는 장면을 연출 했다고 한다. 일행은 저마다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어 요호 국립공원으로 이동, 수백년 강물의 흐름이 만든 '자연의 다리'와 눈 덮인 메메랄드호수를 관광 하고 레벨스톡으로 옮겨 편안한 밤을 지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버스로 이동 중 특이하고 멋진 갈색 바위산이 차창 앞에 나타났다. 사진작가들이 작품촬영으로 선호하는 산이며, 과거 이곳을 방문한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나처럼 잘생겼다"며 부러워해 이름 지었다는 마운틴 캐슬(아이젠하워 마운틴)을 버스 안에서 감상하며 3박 4일간의 숨 가빴던 여정을 돌아켜보았다. 한참을 달렸을 무렵 '밴쿠버'란 도로 표지판이 보였다.

일행은 3박4일 동안 거대한 명산 록키산맥 관광, 2,200Km를 완주하고 4월9일 오후3시 출발지인 밴쿠버로 무사히 돌아왔다. 처음 염려와는 달리 최고급 고속버스의 안정감, 재미있고 열성적인 가이드의 만점안내, 일행의 질서 있는 행동 등으로 우리 '록키관광 136기팀'은 아주 편안하고 보람되고 즐거운 분위기속에 여행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 또한 록키 여행의 좋은 추억이 되리라 생각 한다. 그리하여 달리고 또 달려도 끝없이 펼쳐진 경제림 숲, 그 아래서 병풍처럼 무성하게 자라는 작은 나무들... '또 하나의 캐나다 100년 1000

년을 떠받치고 있구나' 하는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지난 3월28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캐나다항공이 캐나다 제3의도시 밴쿠버에 도착한 것은 29일 오후3시, 시차를 넘어 10시간 만이다. 친지 집에 여장을 풀 일행은 근처 한식당에서 선지해장국 등을 나누고, 다음 날부터 시내 관광을 했다. 아직 냉기가 도는 도로변에는 비에 젖은 빗꽃들이 가끔 눈에 띄었다. 도시 곳곳의 나무숲과 하늘을 찌를 듯 길게 뻗은 아름다리 경제림으로 둘러 싸인 전원주택들, 멀리보이는 설산 등 맑고 싱그러운 환경에 가슴이 확 뚫렸다.

태평양 끝지락 최대의 관문인 항구도시, 인구 188만 여명에 교민 약6만 명이 사는 밴쿠버에는 세계 각 국의 선박들이 찾아 들고 있으며 때마침 정박 중이던 현대. 한진 소속 선박을 볼 수 있었다.

도시 곳곳에서 중국, 한국, 인도 등 각국의 이민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 '이민천국'을 실감했다. 중국인의 차이나타운은 그 규모가 북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크며 다음으로 한국인의 한인 타운이 꼽혔다. 이민 20년의 한 교민은 "이민가족 어학연수생 유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어 곧 한국인이 중국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곳의 '다섯 천국'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첫 번째가 장애인이고 다음이 어린이, 노인, 개, 여자 순 이다. 장애인 관정을 받으면 죽을 때 까지 전부 무료,

빙산 길 빼고는, 록키산맥 등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길과 시설이 되어있다고 한다. 어린이는 법적으로 때리지 못하게 돼있고, 철저한 노령보험제도, 마을마다 산책로마다 개 산책로가 별도로 조성돼 있어 아침은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개 산책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아이가 딸린 부부가 이혼하면 남편이 평생 동안 양육비등을 지급해야한다. 엘리자베스 여왕시절에 만든 법이라 한다. 또 개 천국이어서인지 2~3마리정도의 개를 키우는 집이 많다 그래서 친척 모임이라도 있으면 집안은 '개관'이 된다.는 우스갯 소리도 있다.

이러한 천국에서 벼룩시장이 열린다 해서 가보았다. 아침10시 조금지나 도착했는데 벌써 초만원이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물품을 고르고 사느라 시끌벅적했다. 옷가지 가전제품 등 갖가지 중고품들이 신명나게 팔렸다. 노인들이 주관하여 생긴 수익금은 자선기금으로 활용한다. 밴쿠버 시내에는 주기적으로 열리는 벼룩시장 말고 상설 중고시장이 여러 곳 있었으며 그곳에도 고객들이 많았다. 주 고객이 30~40대주부들로, 한산한 도심의 백화점이나 상가와 대조를 이루었다. 이런 알뜰한 제도는 우리도 본받아 실행했으면 한다.

또 밴쿠버 항구부근 스텔리공원에서 북 밴쿠버로 통하는 라이온스 게이트 교는 캐나다 제일의 장대함을 자랑하는 긴 다리. 밑으로는 외항의 대기선과 여러 선박들이 왕래 하고 있으며 아래쪽 해안도로는 개 산책로와 시민 산책로가 함께 조성되어있다.

이렇게 밴쿠버는 어디로 가나 산과 바다, 호수, 나무숲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어 그야말로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전원도시 그 자체였다.

4월11일 오후3시, 일행은 록키관광 3박4일, 밴쿠버 체류 11일등 15일간의 캐나다 여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밴쿠버를 이룩한 비행기 안에서 한참동안 명상에 잠겼다.

— '살고 싶은 도시 세계1위'에도 장단점은 있는 것 같다. 법을 철저히 지켜야하고, 여러 규정이 너무 엄격해 '윙통성'이 없고, 6개월이란 긴 우기(장마), 느리고 여유로운 생활환경등에 적응 하지 못해 '낙원' 같은 밴쿠버 지만 살기 힘들고, 지옥 같은 한국이지만 살기에는 좋은 나라'라는 푸념이 나온다. 그래서 역 이민자가 늘고 있다고...☞

18면에서 이어집니다.

많은 꽃을 피운 산등성이 양지 바른 곳의 매화나무를 옥색 섬진강을 배경으로 내려다보는 풍경은 무릉도원을 연상케 한다.

섬진강을 따라 30여분을 달렸을까 어느새 최참판택을 가는 삼거리가 나온다.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약간의 언덕배기를 오르자 마을 어귀에는 공동무물이 나타난다. 옛날 한여름에 바가지로 물을 떠서 등목하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어머니가 늘 등 짙을 밀면서 손바닥으로 찰싹 때리시던 추억이 그림자. 우물가 옆으로는 오두막집에 돌담길이 널려있고 그 사

이로 매화나무가 꽃망울을 터트린다. 서희와 길상이의 숨결을 느껴보는 여기저기를 보면서 최참판택에서 내려다본 평사리의 초록빛 평야는 보는 이의 가슴속을 시원하게 적셔준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다보니 어느새 오후 2시가 돼 간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차로 20여분을 달렸을까. '화개장터'가 나온다. 조영남의 노랫말처럼 화개장터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섬진강 다리를 사이에 두고 있다. 다리 건너는 광양시 다압면이고 이쪽은 경남 하동군이다. '화개장터'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오고 가는 상인들은 물론 관광객까지 합쳐 크게 붐빈다. 화개장터에는 온갖 생활필수품과 지리산에서

채취한 봄나물들이 대부분이다. 매년 이맘때면 화개장터에서는 벚꽃축제를 연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이른 봄이라 그런지 축제는 열리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생계사 10리길에 벚꽃이 만개할 때면 어김없이 축제가 열린다. 화개장터는 관광객이 많은 관제로 음식점도 많고 특히 재첩국과 다슬기 요리가 유명하다고 한다. 우리도 이곳의 별미인 '다슬기 무침'에 '다슬기 탕'으로 점심을 했다. 시골 들녘은 겨울 속에서 깨어난 파릇파릇한 풀들이 돋아나고, 논두렁을 태우는 농부들의 손길이 한가롭게 보인다. 겨우내 기다렸던 봄을 만나러가는 마음으로 약 30분쯤을 갔을까 구례산동마을이 나온

다. 산동마을은 아랫마을이 '하위마을'이고 윗마을이 '상위마을'이라고 한다. 온통 마을은 산수유 꽃으로 노랗다. 길가와 집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산기슭과 골짜기, 논두렁과 밭두렁 등 눈길 닿는 곳마다 온통 샛노란 꽃구름이 내려앉은 듯하다. 마을 한가운데 돌담길 사이로는 지리산에서 흘러내려온 명징한 개울물이 졸졸 소리를 낸다. 역시 이곳도 많은 관광버스와 전국에서 몰려든 승용차들로 만원이다. 가까스로 '상위마을'에 도착했다. 시간은 없는 데 볼 곳은 많다. 비록 입의 그림자만 보고 만 형국이 되었지만 내 마음은 어느새 노란빛으로 기분 좋게 물들어 있었다.☞

‘生居鎭川’서 즐거운 하루

언론진흥재단 문화탐방

생거진천사거용인(生居鎭川死去龍仁). 살아선 진천에서 살고 죽어선 용인으로 간다는 말이다. 진천이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소문난 까닭이 궁금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금년도 1차 문화탐방 방지로 진천을 택한 것도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였을까, 동참할 기회를 마련해준데 감사하며 서울에서 두 시간 남짓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다보니 진천 인터체인지 ‘생거진천’이란 간판이 눈에 보인다.

우리 일행이 처음 찾은 곳은 길상사(吉祥祠). 흔히들 사찰로 착각하기 일쑤란다. 모두들 우산을 받쳐 들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니 흥무전(興武殿), 그 안에 김유신 장군의 영정이 모셔져있고 앞뜰엔 1957년에 세웠다는 흥무대왕신성비(興武大王神聖碑)가 비를 피해 서 있다. 진천군청에서 파견 나온 김성규 해설사의 기억력에 감탄하며 김유신장군이 진천에서 출생해 삼국 통일의 대업을 완수하기 까지 역사 공부를 다시 한 느낌이다. 이어서 찾은 곳은 김유신장군생가 터. 해발 461.8m의 태령산(胎靈山) 정상엔 김유신장군의 태를 묻었다는 태실이 있지만 비가 와 못가 본 것이 못내 아쉬웠다.

서둘러 보탑사에 이르니 우람한 3층 통일 대탑이 반긴다. 보탑사 통일 대탑은 신라 때 김유신 장군이 3국통일을 이뤄 냈듯 남북이 통일되기를 기원하며 지은 삼층 목탑이다. 내부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지어졌다. 1층(금당)에는 심주를 중심으로 사방불, 2층(법보전)에는 경전, 3층(미륵전)에는 미륵3존불을 모셨는데 보탑사의 진수를 알려면 내부를 보아야 안다는 말이 실감났다.

와불(臥佛)을 대하니 더욱 숙연해진다. 인근엔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404호인 백비가 서있



김유신 장군 사당. 길상사에서 기념촬영.



붕어찜 점심으로 보신하는 참가자들

다. 어느 청백리의 공적을 기려 세웠다는 이 비석은 거북 받침위에 비 몸을 세우고 머리엔 아홉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물려고 하는 모습이 특이하다.

바쁜 일정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진천의 명소가 바로 농(籠)다리다. 고려 초기의 군신 임연장군이 축조하였다고 전해지는 이 돌다리(石橋)는 암질의 붉은 돌을 쌓아서 만든 다리로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긴 옛 다리다. 나라 안

에 번고가 있을 때마다 운다니 신기한 다리가 아닌가. 잠수교의 원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다려지는 붕어찜 점심은 듣던 대로 일미였다. 30cm 정도 크기의 붕어를 3~4시간 정도 삶아 갖은 양념을 곁들인 요리다. 붕어의 쫄깃하고 담백한 맛과 시래기의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붕어는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을 앓는 사람들에게 인기

라니 경치도 좋지만 문전옥답 먹을거리 붕어찜으로 몸보신, 그래서 생거진천이라 했던가. 해마다 열린다는 붕어축제는 상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인다. 붕어찜 점심이 기운을 배가시켰는지 정송강사로 달리는 버스 또한 발길이 가볍다.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꽃 꺾어 씹하면서 무진무진 먹세 그려/이 몸 죽은 후에/지게 위에 거적 덮어 졸라매어 지고 가나/화려한 꽃상여에 만인이 울며가나/역새, 속새, 떡갈나무, 백양 속에 가기만 하면/누른 해, 흰 달, 가는 비, 붉은 눈/쌀쌀한 바람 불 때/누가 한 잔 먹자 할 꼬/하물며 무덤 위에 원숭이 휘파람 불 때 뉘우친들 무엇 하리” 애주가의 호방한 성격이 눈에 선한 송강 선생이 지은 장진주사(將進酒辭)다. 선조가 딱 한잔씩 만 마시라고 하사한 술잔을 두드려 늘린 은배(銀杯)를 보고 유창한 해설사의 암송을 듣다보니 붕어찜 점심에 곁들인 막걸리 반주 생각이 굴뚝같다.

가사문학의 거성 송강선생의 얼과 유혼이 살아 숨 쉬는 송강사, 선생이 남긴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사미인곡 성산별곡과 구구절절이 가슴에 와 닿는 훈민가를 떠올리며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우리나라 유일의 종 박물관. 종의 종류가 이렇게 많고 다양한지를 여기 와서 알았다. 진천 석장리는 한국 최초로 4세기대로 추정되는 고대제철로의 실례가 발견된 곳으로 유명하다. 바로 이곳에 종박물관이 세워진 것은 해설사의 말대로 우연이 아닌 듯 싶다. 走馬看山격이었지만 생거진천에 와서 배우고 맛보고 즐긴 보람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추억이다. 끝으로 이 고장 명주를 맛보게 한 진천군청과 비를 맞으며 목이 시도록 자상하게 해설해 준 세분의 해설사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출처]

글 정운종 상임이사

언론가 소식

권성 언론중재위원장 연임



언론중재위원회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위원장으로 권성(70) 현 위원장을 재선임했다. 권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행정법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 4월부터 언론중재위원장을 맡아 왔다.

한국신문협회 2011 ‘한국신문상’ 시상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지난 4월 7일 금년도 신문상을 시상했다. 수상작으로는 뉴스취재보도 부문에 중앙일보의 ‘사라진 조선국보 일본 왕실에 있다’가, 기획탐사보도 부문에는 국민일보의 ‘잊혀진 민행, 일본 전범기업을 추적한다’, 기획보도 부문에 광주일보의 ‘함께 열어요, 우리의 미래’가 선정됐다.

매일경제 창간 45주년

매일경제(발행인 장대환)는 3월 24일 창간4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최은희 여기자상 최현수 국민일보 기자



올해로 28회를 맞은 ‘최은희 여기자상’ 수상자로 국민일보 최현수 정치부 군사전문기자가 선정됐다. 최 기자는 “국내 유일의 여성 군사전문기자로, 천안함 폭침사건 때 한글이 새겨진 어뢰 추진체를 발견했다는 특종기사 등을 보도해 군사전문기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최 기자는 1988년 국민일보 입사 이후 국제부, 사회부, 정치부 등을 거쳐 2008년 탐사기획팀장, 2009년부터 군사전문기자로 뛰고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 특종’으로 한국여기자협회로부터 제8회 올해의 여기자 상을 받았다.

한국일보 故 장기영 사주 34주기 추모식

한국일보 창간 발행인인 고 백상 장기영 사주의 34주기추모식이 지난 4월11일 경기 하남시 창우동 묘소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장재구(사진 가운데) 한국일보 미디어그룹 회장, 이종승 한국일보 사장,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사장, 박무종 코리아타임스 사장, 임철순 한국일보 주필, 홍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 신상석 뉴시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신문협회 기조협의회 새 회장 이준씨



한국신문협회 산하 기조협의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이 준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김승환 동아일보 경영총괄담당, 장철환 한국일보 기획실장, 이상훈 매일신문 서울지사장 등 부회장 3명과 이사 11명, 감사 1명도 함께 선임했다. 기조협의회는 한국신문협회 회원사 소속 경영기획

담당 임원 및 실(국)장들의 단체로, 신문 경영 기획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해 1997년 8월 27일 창립됐으며 현재 전국 22개 주요 신문사가 가입돼 있다.

방통위원 임광석·권혁부·김택곤씨 추천

공석 중이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회의장 몫 심의위원으로 한나라당은 임광석 전 SBS 논설위원과 권혁부 현 방통심의위원을, 민주당은 김택곤 전 전주방송 사장을 19일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

신임회우 환영합니다



송평성(宋坪星) 1936년 3월 12일생
서울 강서구 가양2동 1461 성지 아파트 201-1407
010-5218-1711, 3664-0503
연합신문 사회부 정치부기자(59), 중앙일보 지방부 경제부기자(65-69), YTN 사외이사(87-88), 삼성그룹 회장비서실장 기획실장(69-75)



안병찬(安炳璨) 1937년 1월 4일생
서울 마포구 도화동 353 현대 휴타운 201-1704
016-770-3630
한국일보 기자 주월·주불 특파원, 논설위원, 시사저널 주필(89-97) 관훈클럽 총무(89), 한국비디오저널리스트협회 회장(97-현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2008-2011)



원창묵(元昶默) 1940년 5월 26일생
서울 구로구 오류동 금강수목원 아파트 108-503
011-816-0505
TBC(동양방송) 아나운서, KBS 한국방송 아나운서(68-80), KBS TV 부주간(90-92), KBS 안동방송국장(94-98), KBS 방송문화센터 강사(98-2010)



장기효(張基孝) 1942년 8월 22일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여의도 자이아파트 201-2703
782-2325 011-774-9871
신아일보 사회부 기자 차장 사회부장, 업무국장(67-80), 한국삼영 무역(주) 전무 이사 대표이사 사장(81-90), 신아일보 사우회 회장(2005-현재)



정운택(鄭雲澤) 1947년 7월 30일생
서울 중랑구 신내동 317 데시앙아파트 108-901
496-5545 019-256-5545
신아일보 기자, 서울경제 한국일보 기자(72), 서울 신문 기자(75), 서울신문 출판편집국 TV가이드 차장(89), 서울 신문 편집부장 퇴직(97)



정홍택(鄭鴻澤) 1939년 1월 2일생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2 문화콘텐츠 센터 10층 저작권 연합회
011-783-1123
한국일보 사회부 문화부 외신부 기자, 미주 한국일보 미주 중앙일보 편집국장, 사업위원, 월간 편집국장(63-82), 예술의 전당 운영국장, 공영윤리위원회 사무처장(90), 국제영상자료원 부회장(2001)



조규석(曹圭石) 1942년 8월 24일생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94-2
010-6462-3354
신아일보 사회부기자 도쿄 특파원(67-77), 문화방송 보도국 외신부차장(80-82),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홍보전문위원(84), 세계일보 특집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대리 논설실장(88-97)

서재필 박사 60주기 추모제 제1회 언론문화상 KBS 수상

독립협회를 창립한 송재 서재필박사의 60주기 추모제가 4월 8일 전남 보성 서재필기념공원에서 열렸다. 서박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 날(1994년 4월 8일)을 맞아 서재필기념사업회와 광주일보가 공동 주관한 이번 추모제는 안중현 광주지방법보훈청장과 광복회원, 유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편 서재필기념회(이사장 안병훈·본회 회우)는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서재필 언론문화상을 시상했다. 상은 KBS '수단의 슈바이처 고 이태석 신부, 울지마 톤즈'가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11년 민족언론인 동판 헌정식도 함께 진행됐다.

본회와 서재필 박사와는 각별한 관계



서재필기념회 안병훈 이사장(왼쪽)이 KBS 구수환 PD에게 언론문화상을 시상했다.

다. 서재필박사 동상을 본회가 주도해 제막식(1990년 4월 7일)을 가졌고 서재필박사의 유해를 안장(1994년 4월 21일)한 것도 당시 언론단체들과 국가보훈처의 후원을 얻어 대한언론인회가 주관했다. [본문]

정기백 원로회우 별세

정기백 원로 회우가 지난 4월 5일 별세했다. 향년87세. 강북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4월 7일 오전 7시 발인. 고 정기백 회우는 1925년 서울서 출생하여 중앙대학교 국문과를 졸업(1951년)하자마자 시사통신 사회부기자로 언론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상공일보 취재부 기자(1954년), 국도신문 사회부 기자(1957년), 시사통신 편집 정치 안보부장(1963년), 산업통신 편집국장(1974-80년) 등을 역임하고 대한언론인회 자격심사위원

전문위원으로도 활약했다.

정기백 선생 영전에

홍원기(본회 회장)

먼저 고 정기백 선생의 명복을 빌며 졸지에 상을 당하신 유가족 분들에게 대한언론인회 회원 일동을 대신해서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언론계의 큰 기둥이셨습니다. 선생은 1951년 중앙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신 뒤 곧바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 놓으셨습니다. 시사통신 사회부 기자 4년 동안 취재전선에서 당시의 사회상을 생생



정기백회우 빈소에서 조사를 읽는 홍원기 회장.

하게 보도 하셨는가하면 주로 편집 분야에서 달관한 실력을 발휘하신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선생의 번뜩이는 기지와 안목이 돋보이는 신문제목은 선생의 탁월한 편집역량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 했습니다. 선생은 언제나 과묵하면서도 따뜻한 인간미와 친화력으로 늘 후배들을 격려하면서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일깨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선생의 올곧은 언론관과 탁월한 친화력과 진취적인 역량은 늘 존경받는 언론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곁에는 항상 친구가 많았고, 따르는 후배들이 많았습니다. 선생의 올곧은 성품은 선생이 대한언론인회 회원으로 회원자격심사위원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시면서 더욱 돋보이셨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고 영면하시는 선생을 우리 언론인 동료와 후배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선생께서 가시는 하늘나라는 이승에서와 같은 고통이 하나도 없는 극락 영생의 세계일 것으로 믿습니다.

이 길은 언젠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부디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일랑 잊어버리시고 인간의 마지막 생명이 영원히 잠드는 그 곳에서 편안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론인들은 선생님의 영적인 삶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빌고 또 빌 것입니다. 거듭 고 정기백 선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전 순직종군기자추도식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는 지난 4월 27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 통일공원 내 종군기자 추념비 앞에서 한국전 순직종군기자 추도식을 가졌다. 대한언론인회, 유엔군 사령부, 한국전 종군기자동우회, 파주시, 유엔한국참전국협회 후원으로 거행된 이날 추도식에는 대한언론인회 홍원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본회 '6·25 참전동우회' 회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회 우 동 정

(가나다순)

KBS 사우회 고문추대, 공로패 받아



김수웅(전KBS 사우회 회장)회우 =KBS 사우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김수웅 전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공로패를 수여했다.

동아일보 동우회 부총무



박문두(전 동아일보영남취재본부부장) 회우 =동아일보 사우회 김광희 회장은 박문두 본회 회우를 동우회 부총무로 선임했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박선영(자유선진당 대변인)회우 = 3월 30일 자유선진당 정책위 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국회도서관이 주는 국회도서관 이용률 우수의원상도 받았다.

‘방송기자저널’ 탐방인터뷰 인물로



송경섭 (전 KBS 뉴욕지국장)회우 = 한국방송기자클럽 기관지 방송기자저널 ‘탐방인터뷰’ (박성희 기자 인터뷰)난에 근황을 자세히 소개.

김관진 국방장관 초청 대토론회



오건환(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전 본회 상임이사=지난 3월 31일 김관진 국방장관을 초청, TV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천안함 1주기, 국방개혁 307 등 국방 안보 분야 전반을 다뤘다.

언론중재위원 시정권고위원에



어경택(전동아일보 이사·전편집국장)회우 =4월 11일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시정 권고위원으로 선임.

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제막식



이경재(국회의원·전 동아일보 논설위원)회우 = 최근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와 고도화된 전파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설립한 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출범식에서 제막식 거행.

‘청소년이 묻고 과학자가 답하다’ 출간



이광영(한국골든에이지포럼 상임이사) 회우 = 4월 15일 과학기술계 인사 22명과 함께 공동 집필한 ‘청소년이 묻고 과학자가 답하다’ 출간(자유로운 상상사 간·신국판 295면 12,000원.)

칼럼집 일본어로 번역 출판



정재호 원로 회우(본회 논설위원)=2000년 신세기 벽두에 맞춰 펴낸 ‘새천년 새벽의 초대’ (정재호 문집 391쪽)

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권력행사의 족적을 추적한 칼럼 집 ‘대통령의 초상’ (389쪽)이 일본어로 번역 출판된다. 번역 출판은 일본 東京都 新宿區 戸山町 慶昌堂출판사이며 오는 9월 하순 일본에서 시판될 예정이다.

영연방 6·25 격전 60주년 기념식



지갑종(유엔한국참전국협회 회장)회우 = 6·25 참전 영연방국 참전용사 218명(영국 101, 호주 35, 뉴질랜드 28, 캐나다 54)과 의장대, 군악대 73명 등 총 291명의 방한을 맞아 옛 격전지 임진강 설마리(23일)와 가평(24일)에서 각각 ‘격전 제 60주년’ 기념식과 추도식을 거행했다.

고 현원복 회우 저술 활동 발표회



최선록(전 서울신문 편집부국장)회우 =4월 16일 대전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있었던 고 현원복 회우 추모회의에서(100여명 참석), ‘고인의 과학 저술서 38권에 대한 빛나는 저술 활동’을 발표.

▶ 전화번호 변경 ◀

김후란 회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34-4 현대파인빌리지205동205호
(우편번호448-130) 010-3000-8266
근무처: 서울 중구 예장동2-20 「문학의 집 *서울」 02-778-1026

언론사 社友會 소식

동아일보

5월 18일 임시총회 겸 단합대회

①동아일보사우회(회장 김광희)는 5월 18일 오전 11시 한양대 동문회관 5층 대연회장에서 2011년도 임시총회 겸 봄철 사우단합대회를 갖는다.

②동아일보사우회는 동우회 사이클 동호회를 발족 시키고 초대회장에 전창규 동우회 총무이사를, 총무에 백무남 회우를 선출했다. 동우회 사이클 동호회는 4월 9일 여의나루에 7명이 모여 주행을 했다.

③동아방송 동우회(회장 안평선)는 4월 25일 오후 5시 서울 신문로 흥국생명빌딩 지하 1층 중식당 관썬이에서 ‘동아방송 개국 48주년 기념식행사를 가졌다. 동아일보 종합편성TV ‘채널 A’ 설립을 앞두고 선배들의 방송 노하우를 전수할 목적으로 마련한 이 자리엔 전 동아방송 사우들이 대거 참석, 단합을 과시했다.

KBS

역대회장 초청 간담회

KBS사우회(회장 강대영)는 지난 3월 25일 사우회 회장실에서 역대회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범경

(6-7대) 서병주(8-9대) 김은구(10대·본회 상담역) 김수웅(11대·본회 회우) 씨등이 참석했다.

SBS

여성동호회, 음악감상동호회 신설

SBS사우회는 사우회 운영 활성화계획에 발맞춰 여성동호회와 음악감상동호회를 신설했다. 여성동호회 회장엔 변순복, 음악감상동호회는 최경수씨가 각각 회장직을 맡아 수고하고 있다. SBS사우회는 이밖에도 골프(회장 이충기), 낚시(회장 임종철), 등산(회장 윤용우), 바둑(회장 윤충의), 문화예술(회장 이재명,) 트레킹동우회(회장 박건삼) 등이 활동하고 있다.

MBC

사우회 살림 긴축예산으로 편성

MBC사우회(회장 강영구)는 지난 2월 25일 정동 아빠네마 관공식당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금년도 예산으로 2억 6,500만원을 확정했다.

MBC사우회는 또한 MBC 3층에 퇴직사우들을 위한 휴게실 ‘社友舍廊’을 마련했다.

회우저술 문고 보내주신 분

(접수 순)

박정진 회우 = ‘박정희의 실상, 이영희의 허상’ (2011)
안평선 이사 = ‘大王 광고에 팔리다’ (2011)
이세환 회우 = ‘동무! 나 국군이요’ 6·25 공군특무부대 대북 첩보작전(2004)
남시욱 회우 = ‘한국 보수세력연구’ (증보판)(2011)
홍원기 회장 = ‘90년대 신문경영(판매 광고)’ (1992) ‘신문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1994년) ‘신문인생 50년’ (2007)
김 현 회우 = ‘해외여행에 꼭 필요한 158가지 도움말’ (1995) ‘여보 우리도 배낭여행 떠나요’ (1995) ‘여보 우리함께 떠나요’ (1996) ‘하늘에도 길이 있다’ (1998) ‘세계 도시기행’ (2004) ‘나의 아이들 하느님의 아이들’ (2005) ‘사목자의 리더십과 봉사자의 자세’ (2005) ‘당신 안에서 행복 했습니다’ (2007) ‘나는 십자가 그늘 밑에 자라나는 한 떨기의 오랑캐 꽃이다’ (발간예정)
정재호 원로회우 = 정재호 문집 ‘새천년 새벽의 초대’ (1999) ‘대통령의 초상’ (2004)

▶ 연회비 납부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2009년 박동은 이태자 정재호

2010년 박동은 신동철 이태자 장효상 정재호

2011년 권도홍 김수남 김철진 박동은 박연호 백환기 송호창 신동철 이영일 이태자 정기정 정재호 조규석 최선록

大韓言論

창간 1977년 4월 7일
발행인겸 편집인 홍원기
편집위원장: 성낙오
발행처 (사)대한언론인회
주소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전화 (02) 732-4797/4798 (02) 2001-7621
E-mail: kjc1405@hanmail.net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는 윤리도덕을 숭상하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개조(人間改造)와
정신개벽(精神開闢)으로 포덕천하(布德天下)·구제 창생(救濟蒼生)
보국안민(輔國安民)·지상천국(地上天國)을 이룩한다.

연혁

종단 대순진리회 종무원장 이 유 중

- 1958년 3월 (음) 도전 박우당(朴牛堂) 도주 조정산의 유명으로 중통계승
- 1969년 4월 (음) 종단 대순진리회 창설 및 중앙본부도장 창건(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 1971년 5월 (음) 중곡도장 영대봉안
- 1974년 3월 (음) 《진경(典經)》발행
- 1976년 3월 대순장학회 발족
- 1984년 2월 학교법인 대진학원 설립(현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 1984년 12월 대진고등학교 설립
- 1986년 10월 (음) 여주수도장 건립 및 영대 봉안(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가야리)
- 1988년 11월 대진여자고등학교 설립
- 1989년 6월 (음) 제주수련도장 건립(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 1991년 11월 대진대학교 설립

- 1992년 6월 (음) 포천수도장 건립(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 1992년 11월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 설립
- 1993년 1월 (음) 여주수도장으로 종단본부 이전
- 1994년 2월 분당대진고등학교 설립
- 1994년 10월 대진전자공업고등학교 설립(현 대진디자인고등학교)
- 1995년 1월 분당제생병원, 동두천제생병원 기공
- 1995년 1월 일산대진고등학교 설립
- 1995년 8월 종무원장 임명(이유중 종무원장)
- 1995년 10월 대진전자정보고등학교 설립(현 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
- 1995년 12월 (음) 도전 박우당 화천(化天)
- 1995년 12월 (음) 금강산토성수련도장 건립(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인흥리)
- 1997년 11월 금강산토성수련도장 미륵봉 봉안

- 1998년 1월 충북대진대학교 기공
- 1998년 8월 분당제생병원 개원
- 1999년 8월 (음) 박상장제 영대봉안(도전 박우당)
- 2000년 5월 러시아 연해주에서 영농사업 실시
- 2000년 10월 고성제생병원 기공
- 2001년 4월 연해주 농장수확 곡물 북한에 지원
- 2001년 5월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 설립
- 2001년 6월 노인주거복지시설 골든벨리 및 아동양육시설 우리집 운영
- 2002년 3월 러시아 현지 영농법인 (유)아그로상생 설립
- 2002년 3월 노인의료복지시설 상생노인전문요양원 기공
- 2002년 4월 연해주 켄주쥬 농장 인수
- 2007년 현재 15개농장(3억5천만평) 운영
- 2005년 5월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개관

■ 중지(宗旨)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 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

■ 신조(信條)

사강령(四綱領) - 안심(安心) 안신(安身) 경천(敬天) 수도(修道)
삼요체(三要諦) - 성(誠) 경(敬) 신(信)

■ 목적(目的)

무자기(無自欺) - 정신개벽(精神開闢)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 - 인간개조(人間改造)
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 - 세계개벽(世界開闢)

■ 삼대중요사업(三大重要事業)

◇ 구호자선사업

불우이웃돕기, 불우아동돕기, 신체장애자돕기, 나환자돕기, 이재민돕기, 수재의연금모금, 재해지역피해민돕기 등

◇ 사회복지사업

자연보호캠페인, 교통질서 및 거리정화운동, 지역개발사업, 방범활동, 농촌일손돕기, 미아보호운동, 경로사상선양운동, 청소년육성회돕기

-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
 - 아동양육시설 우리집
 - 노인주거복지시설 골든벨리
 - 노인의료복지시설 상생노인전문요양원
 -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 러시아 현지 영농법인 (유)아그로상생

- 의료사업 -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
 - 분당제생병원
 - 동두천제생병원
 - 고성제생병원

◇ 교육사업

- 육영사업 -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 대진대학교
 - 대진고등학교
 - 대진여자고등학교
 - 분당대진고등학교
 - 일산대진고등학교
 - 대진디자인고등학교
 - 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
 - 충북대진대학교

- 장학사업 - 대순장학회
 - 장학금 지급상황(1976년~2005년)
79,277명에게 31,636,497,640원 지급

IAAF World Championships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1. 8. 27 ~ 9. 4 대구스타디움 www.daegu2011.org



대한민국 대구에서 전세계 65억 인구의 감동이 시작됩니다!

● 입장권 구매(예매)처 ●

- 인터넷 : 인터파크(sports.interpark.com/1544-1555), 조직위(www.daegu2011.org/053-803-9264)
- 직접 판매처 : 대구은행 전국 각지점, 대구시청 및 구·군청 민원실, GS25편의점(ATM기 설치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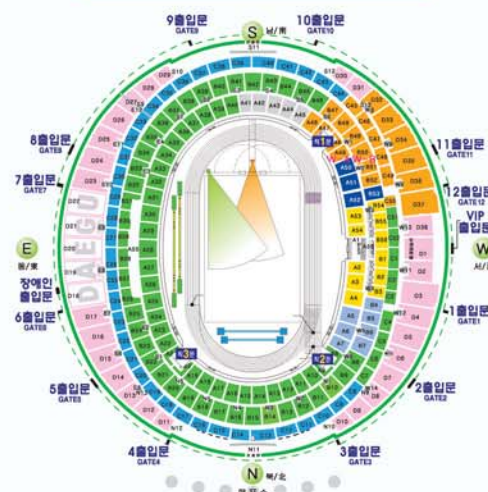
● 입장권 가격

(단위 : 원)

구 분	프리미어		A석	B석	C석	비 고
	F석	S석				
개회식 입장권	150,000	120,000	50,000	40,000	20,000	첫날 저녁경기 포함
오 전 입 장 권	30,000	30,000	20,000	10,000	-	
저 녁 입 장 권	100,000	80,000	40,000	20,000	-	
일 일 입 장 권	125,000	105,000	55,000	25,000	-	
시 즈 입 장 권	850,000	700,000	300,000	200,000	-	전경기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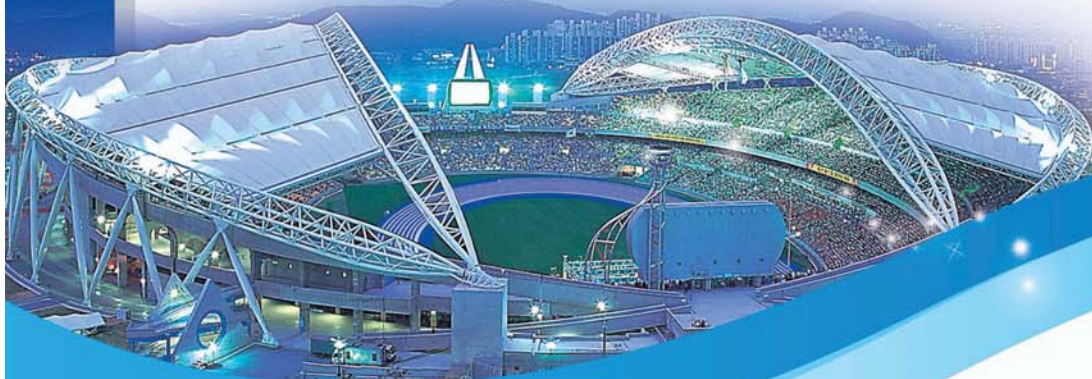
※ 어린이(12세이하) 30%, 장애·경로·국가유공자 50%, 단체(50명이상) 30% 할인,
꿈나무 및 대학생 프로그램(초·중·고, 대학교)참여학교는 별도할인
단, 개회식, 프리미어석, 시즌석 입장권은 할인 되지 않으며, 중복할인 불가

● 입장권 좌석 배치도



구 분	좌석등급
가장 높은 등급	VVIP석, VIP석
가장 높은 등급	미디어석
가장 높은 등급	선수석
프리미어	F석
프리미어	S석
	A석
	B석
	C석

F : 결승선 S : 출발선 ※ C석은 개회식에만 해당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IAAF World Championships Daegu 2011

국제육상경기연맹 공식파트너

